

## IV. 대외 관계

1. 당과의 관계
2. 일본과의 관계
3. 해상활동

## IV. 대외관계

### 1. 당과의 관계

#### 1) 친당외교의 추진

신라가 唐과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맺은 때는 眞平王 43년(621)이었다. 당시 3국은 隋의 등장(581) 이후 외교전쟁을 치열하게 추진하였으며, 당도 수 이래로 빈번한 고구려원정에 실패한 과거의 복수심에서 3국, 특히 고구려에 대한 견제의 정략으로 진평왕 46년에 책봉을 하였다. 따라서 통일 이전까지의 朝貢을 중심으로 한 3국과 당과의 외교관계는 고구려가 25회, 백제는 22회, 그리고 신라는 34회에 이르렀다.<sup>1)</sup> 그러므로 통일 이전에도 이미 신라의 대당외교관계는 백제·고구려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3국의 외교전쟁은 遣唐使의 파견에도 나타나 있다. 즉 고구려의 경우 桓雄(영류왕자)·任武와 福男(보장왕자)의 예나, 백제의 福信(무왕의 조카), 그리고 신라의 경우는 金春秋와 그 아들(法敏·仁問·文王) 및 고구려 왕족(淵淨土)을 사신으로 보낸 사실에서 엿볼 수 있었다.<sup>2)</sup> 더구나 신라는 진흥왕대에 이르러 黨項城의 확보에 이어 백제에 의해서 개척·독점된 西海直航路(赤山航路)를 탈취함으로써 당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sup>3)</sup> 그러나 신라의 대당외교는 일반적인 朝貢使나 謝恩·請兵使보다 宿衛外交에서 통일전쟁의 단서를 찾을 수 있었음이 특이하다.<sup>4)</sup>

1) 申滄植 〈三國의 對唐關係〉(《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84), 315쪽.

2) 申滄植, 위의 책, 316~317쪽.

3) 孫兌鉉·李永澤, 〈遣使航運時代에 관한 研究〉(《韓國海洋大學論文集》 16, 1981).

申滄植, 〈統一新羅의 繁榮과 西海〉(《統一新羅史研究》, 삼지원, 1990), 265쪽.

4) 申滄植, 〈新羅의 宿衛外交〉(위의 책, 1984), 352~390쪽.

신라의 적극적인 대당관계는 백제·고구려정벌에서 군사동맹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문무왕 8년(688) 이후 당의 영토야욕과 신라의 고토회복, 백제·고구려유민의 흡수책이 충돌하면서 양국관계는 정면으로 대립관계로 발전되었다. 그리하여 문무왕 8년 이후 성덕왕 2년(703)까지는 사실상 국교단절 상태가 되었으며, 신라로서는 단순한 당의 영토야욕 분쇄의 성격을 벗어난 통일전쟁이며 민족생존을 위한 거족적 전쟁관계로 확대되었다.

당의 對百濟戰에서 신라와 연합한 것은 대고구려작전의 일부였고,<sup>5)</sup> 신라로서는 무열제의 명에회복의 군사적 모험이었다.<sup>6)</sup> 나아가서 당의 고구려정벌은 대국의 체통을 되찾으려는 전략이었으며, 수·당시대의 天下觀에 입각한 동아시아 세계질서 확립을 위한 전략이었다.<sup>7)</sup> 따라서 竹旨의 신라군이 石城에서 승리한 계기로 문무왕 11년(671)부터 양국은 정면 충돌을 시작하였으며,<sup>8)</sup> 薛仁貴의 항의각서와 문무왕의 답서가 교환되는 등 극도의 긴장상태로 진전되었다.<sup>9)</sup> 이러한 각서교환 직후 唐運送船 70여 척을 격침시켰으며,<sup>10)</sup> 그 후 계속된 충돌은 문무왕 12년 7월의 高侃·李謹行의 연합군 격파, 15년의 劉仁軌·이근행·薛仁貴의 연합군 격파, 그리고 買肖城·七重城 戰役의 승리 등 대소 18전에 6천여 명의 희생자를 안기고 신라측의 완승을 가져왔다. 더구나 설인귀의 당 해군도 伐伐浦敗戰(문무왕 16년)으로 재기불능케 됨으로써, 신라군은 매초성(육)·기벌포(해)의 승리를 계기로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할 수 있게 되었다.<sup>11)</sup>

한편 이러한 당측의 일방적 패배는 신라인의 거족적인 저항에 기인된 것

5) 申滢植, 〈三國統一前後 新羅의 對外關係〉(《新羅文化》 2, 1985), 7쪽.

6) 李鍾學, 〈新羅三國統一의 軍事史的 考察〉(《軍史》 8, 1984), 183쪽.

7) 高明士, 《從天下秩序看 古代的 中韓關係》(1983, 臺灣), 106~111쪽.

8) 문무왕 11년초에 당군이 熊津에 침입하여 幢主 夫果가 전사였으며, 당군 예하의 말갈병이 舌口城을 침범하였으나 격퇴되었다. 이때 당군이 침입한다는 소식에 접하여 眞功(大阿湊)이 甕浦를 수비하고 있었다. 6월에 竹旨에 이끌린 신라병은 加林城(충남 林川 부근)에서 당군을 격파하여 5,300명을 살해하고 백제장군(2명)과 당의 관리(果毅) 6명을 나포하는 전과를 올렸다(《三國史記》 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

9) 李昊榮, 〈新羅三國統一에 관한 再考察〉(《史學志》 15, 1981), 32~35쪽.

10) 《三國史記》 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1년 10월.

11) 李鍾學, 앞의 글, 196~197쪽.

이지만, 한편 당시의 突厥·吐蕃·吐谷渾 등의 빈번한 침입에 따른 邊患의 절박성에 기인한 것도 사실이다.<sup>12)</sup> 그러나 당시 중국측 기록(《資治通鑑》·《新·舊唐書》등)은 패전사실을 삭제하고 日食·大赦기록으로 바꿔 놓았으며,<sup>13)</sup> 당측 대표적 군지휘자인 고간은 열전조차 없다.<sup>14)</sup> 더구나 나당전쟁에 참여한 군통솔자들의 從軍記錄이 없으며, 流配事實만 나타나 있어 중국측이 패전기록을 삭제한 의도를 엿볼 수 있다.<sup>15)</sup> 더구나 張文瓘(侍中)의 東部(신라) 遠征反對上疏에서 볼 때,<sup>16)</sup> 나당전쟁의 실상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당은 邊患除去의 일환인 동방정책(고구려 정벌과 신라고토 장악)에서 완전히 실패하였고, 오히려 신라와의 원만한 관계정립으로 서쪽 변경의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나당전쟁의 종결은 당측에서도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나당전쟁 속에서도 문무왕은 4차에 걸친 명목상의 謝罪使를 파견함으로써 양국 친선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장기간의 대립이 있는 후 神文王이 즉위하고(681), 당에서는 中宗이 등장하여(684) 양국관계에 새로운 분위기가 일기 시작하였다. 이때 중종은 신라측이 太宗廟號를 사용하는 데 대한 부당성을 추궁할 사신을 보냈으나, 신문왕은 정중한 답서를 보내 태종묘호 사용의 불가피성을 피력한 바 있다.<sup>17)</sup>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24년 만의 접촉이었고, 신라측에서도 孝昭王 8년(699)에 당에 사신을 보내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꾀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聖德王(702~737)과 玄宗(712~755)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관계는 급속하게 추진되었다. 성덕왕은 10여 회 사신을 파견했으며, 드디어 12년(開元 원년, 713)에 신라사신은 현종으로부터 공식사절로 대접을 받게 됨으로써 양국관계는 새로운 단계를 맞게 되었다. 이때 唐帝로부터 新羅王으로서의 공식직함(上柱國樂浪郡公新羅王)을 받아 국교단절 45년 만에 국교가 정상화되었다. 이러한 양국의 친선관계 회복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여, 발해와 일본과의 또다른 외교문제가 야기되었다.<sup>18)</sup>

12) 申澄植, 〈三國統一의 歷史的 性格〉(앞의 책, 1990), 15~16쪽.

13) 申澄植, 〈新羅史의 時代區分〉(《韓國史研究》 18, 1977), 22~23쪽.

14) 존·씨·제미슨, 〈新羅同盟의 互解〉(《歷史學報》 44, 1969), 5쪽.

15) 존·씨·제미슨, 위의 글, 6~10쪽.

16) 《資治通鑑》 권 202, 唐紀 18, 儀鳳 3년.

17) 《三國史記》 권 8, 新羅本紀 8, 신문왕 12년.

## 2) 나당 친선외교의 확립

성덕왕 때 이룩된 나당관계는 단순한 조공관계가 아니라, 다양한 사절의 왕래와 문물의 교류가 활발해져 양국간에는 친선관계가 확립되었다. 신라는 빈번한 使行을 통해 漢文化 내지는 서역문화까지 수용하여 민족문화를 개발시켰으며, 중앙으로부터 ‘君子之國’ 또는 ‘仁義之鄉’의 칭을 받게 되면서<sup>19)</sup> 민족적 자존과 긍지를 잃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덕왕(702~737) 재위 기간에는 45회의 대당교섭을 하고 있어, 長壽王(413~491)의 재위 79년間に 北魏와 46회의 조공관계를 갖고 있었던 사실과 비교된다.

그런데 조공은 고대 중국의 정치적 이상인 王道思想의 대외형식으로서, 중국과 그 주변국가간의 臣屬關係가<sup>20)</sup> 아니라 삼국의 정치적 발전과 왕권신장 과정에서 나타난 외교형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치적 안정과 번영은 외교사절(조공사)의 파견 회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왕권이 강하고 국력이 튼튼할 때 조공사 파견이 많아진다. 그러한 예를 장수왕과 복위, 성덕왕과 당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sup>21)</sup>

이와 같이 성덕왕대에는 당과의 친선이 이룩되면서 朝貢使를 비롯하여 賀正使·宿衛 등 각종의 사절을 파견하였으며, 당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持節使가 왕래하였다. 그에 따라 문물교류도 활발하여 정치·문화·경제적 관계가

18) 浜田耕策, 〈唐朝における渤海と新羅の爭長事件〉(《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 吉川弘文館, 1978).

鈴木靖民, 〈奈良時代における對外意識〉(《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卞麟錫, 〈唐代外國使爭長の 研究〉(《亞細亞研究》28, 1985).

韓圭哲, 《渤海의 對外關係史》(신서원, 1994).

宋基豪, 〈발해에 대한 신라의 양면적 인식과 그 배경〉(《韓國史論》19, 서울대, 1988).

——, 〈동아시아 국제관계속의 발해와 신라〉(《韓國史 市民講座》5, 一潮閣, 1989).

19) 《三國史記》권 8, 新羅本紀 8, 성덕왕 30년.

20) 金庠基,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대하여〉(《東方文化交流史論攷》, 乙酉文化社, 1948), 4쪽.

21) 申澄植, 《新羅史》(梨花女大 出版部, 1985), 20쪽.

원활하게 되었다. 우선 통일신라는 260여 년간 120여 회 조공사를 파견하여 2년에 한번 정도로 조공사를 보낸 셈이 된다. 이들은 대개 文物을 바친 일정한 활동을 하였으며 일부는 당의 관직을 받게 되었다.<sup>22)</sup> 특히 공식적인 사절은 入朝使 1인만이 아니었다.

㉔ 문무왕 8년 봄에 元器와 淵淨土를 당에 보냈다(《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㉕ 문무왕 9년 5월에 角干 欽純과 波珍滄 良圖를 당에 보냈다(《三國史記》권 6, 新羅本紀 6).

㉖ 문무왕 12년 9월에 級滄 原川과 奈麻 邊山을 당에 파견했다(《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㉗ 開元 22년 2월 癸巳일에 입당했던 副使 金榮이 당에서 죽었는 바, 老祿少卿의 벼슬을 追贈하였다(《冊府元龜》권 975, 外臣部 20, 褒異 2).

㉘ 莊宗 同光 원년 11월에 왕은 倉部侍郎 金樂 錄事參軍 金幼卿을 파견하여 後唐에 조공하고 방물을 바쳤다(《後五代史》권 5, 唐本紀 5).

이 기록들에서 볼 때 입당시 2명의 사절이 같이 행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공사의 제도적 모색이라고 생각되며, ㉕의 기록에서 副使라는 관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따라서 8세기 초엽에는 정·부사의 구분이 뚜렷하였으며, 景哀王 4년에는 判官까지 수행하고 있어 외교사절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sup>23)</sup>

이러한 외교사절이 제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서 進貢과 回賜의 물품이 다양해져갔다는 사실에도 주목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통일 전에는 주로 果下馬·白金·明光鎧·金甲·彫斧 등이 수출품(進貢)이었으며 비단·의복·병풍·서적 등이 수입품(回賜)이었는데,<sup>24)</sup> 통일 후에는 그 내용이 풍부해졌다. 즉 다음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8세기 이전의 수출품은 금·은·동·인삼·두발·해표피·과하마 등이었으나, 9세기 이후에는 佛經·佛像 등과

22) 신라의 入唐使로 당의 관직을 받은 경우는 흔하지 않았으나, 진덕왕 2년(648)에 金春秋가 特進을 받은 이후 金法敏(大府卿, 진덕왕 4년)·金楓厚(員外郎, 성덕왕 15년)·金鉉質(郎將, 성덕왕 25년)·金相(衛尉卿, 성덕왕 35년)·金標石(衛尉員外 少卿, 혜공왕 8년)·金岳(朝儀大夫試衛尉卿, 경명왕 8년) 등이 있었다.

23) 《三國史記》권 12, 新羅本紀 12, 경애왕 4년 2월.

24) 申澄植, <三國의 對外關係>(앞의 책, 1984), 317~318쪽.

금·은제품이 보내졌던 것으로 보아서 신라 수공업의 발전상을 엿볼 수 있다.<sup>25)</sup> 한편 수입물품도 의복류·비단과 불경·도덕경 등이 주류를 이루어 활발한 문물교류상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흥덕왕 38년(828)의 茶種子의 傳來는 바둑의 교류와 함께<sup>26)</sup> 신라 귀족사회의 생활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빈번한 조공사의 파견에 따른 경제적 출혈은 경문왕 9년(869) 謝恩使가 진공한 32품목에서도 역력히 드러난다.<sup>27)</sup>

〈표 1〉                      대당 수출·수입 물품의 비교

비교 품목		내 용
수출 품 목	문무왕 12년	금·은·동·우황·포목·침
	성덕왕 22년	과하마·우황·인삼·美髮·朝霞紬·魚牙紬·海豹皮·금·은
	헌덕왕 2년	금·은·불상·불경
	경문왕 9년	말·금·은·우황·인삼·魚牙錦·朝霞錦·五色綦帶
수입 품 목	문무왕 14년	역법
	성덕왕 16년	文宣王 초상
	" 32년	앵무새·금은기물·5색비단
	효성왕 2년	노자도덕경
	흥덕왕 2년	불경
	" 3년	차(茶)
	문성왕 13년	불경

조공사의 자격이나 신분에서 볼 때 외교사절의 정치적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대당외교의 중요성에 비추어 진덕왕때 金春秋와 그 세 아들(法敏·仁問·文王)이 활약한 이래, 遣唐使의 신분은 당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문무왕 9년 欽純(김유신 동생) 이래 통일신라의 건당사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5) 申滢植, 위의 책, 336~337쪽.

26) 《三國史記》 권 9, 新羅本紀 9, 효성왕 2년.

27) 《三國史記》 권 11, 新羅本紀 11, 경문왕 9년.

〈표 2〉

통일신라의 朝貢使

인 명	관등(직)	과 건 시 기	사행의 목적	귀국 후 활동 등
金欽純	각 간	문무왕 9년(669)	謝罪	김유신 동생, 장군
良 圖	과진찬	"	"	
祇珍山	금 찬	"	磁石 헌납	
金福漢	대나마	"		
原 川	금 찬	문무왕 12년(672)	謝罪	
金思讓	아 찬	성덕왕 3년(704)		불경 전래
金貞宗		" 12년(713)	冊封	
金欽質		" 25년(726)		왕제
金 相	대아찬	" 35년(736)		증도 사망
金隱居	이 찬	혜공왕 3년(767)		시중, 모반(피살)
金彦昇	대아찬	원성왕 6년(790)		병부령-사신-즉위(헌덕왕)
金俊邕	대아찬	" 5년(789)		시중-병부령-즉위(소성왕)
金陸珍	대아찬	애장왕 10년(809)	謝恩	
金昌南	이 찬	헌덕왕 원년(809)	告哀	
金張廉		" 9년(817)		왕자
金能儒		흥덕왕 6년(831)		왕자, 귀국도중 익사
元 弘	아 찬	문성왕 13년(851)		불경 전래
金富良	아 찬	경문왕 2년(862)		익사
金 胤	소 판	" 9년(869)	謝恩	왕자
金處誨	(兵部侍郎)	진성왕 7년(893)		익사
金 樂	(倉部侍郎)	경명왕 7년(923)		(후당에 파견)
金幼卿	(錄事參軍)	"		"
金 岳	(창부시랑)	경명왕 8년(924)		"
張 芬	(병부시랑)	경애왕 4년(927)		"
朴術洪	(兵部郎中)	"		"
金 咄	(執事侍郎)	경순왕 6년(932)		"
李 儒	(司賓卿)	"		"

\* 賀正使와 宿衛는 제외

〈표 2〉에서 볼 때, 건당사의 관등은 거의가 阿湊 이상의 고관으로, 왕자 · 왕제 등 왕의 친족(김씨)이 선발되었다. 귀국 후 활동을 살펴보다도 侍



中·兵部令을 거쳐 왕으로 등장한 金彦昇(헌덕왕)과 金俊邕(소성왕)의 예로 보아 그들의 지위를 헤아릴 수 있다. 다만 9세기 후반 이후는 관등이 아니라 차관급의 官職위주로 선발하여 전문적인 인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통일신라의 대당외교사신에는 일반 조공사외에 賀正使란 신년축하사절이 있다. 성덕왕 13년(714)에 朴裕가 하정사로 파견된 후<sup>28)</sup> 혜공왕 10년(774)까지 60년간에 20여 차례의 기록이 있는데 <표 3>과 같다.

<표 3> 통일신라의 대당 賀正使

인 명	관 등	파 견 연 대	당의 관직
朴 裕	급 찬	성덕왕 13년(714) 2월	朝散大夫員外奉
金 楓 厚		" 14년(715) 3월	員外郎
金 仁 壹	대나마	" 21년(722) 10월	
金 武 勳		" 23년(724) 2월	
金 忠 臣		" 25년(726) 4월	
金 志 良		" 30년(731) 정월	大僕少卿員外置
金 竭 丹	(大臣)	" 33년(734) 4월	尉衛少卿
金 義 忠		" 34년(735) 정월	
金 抱 質	사 찬	" 36년(737) 2월	
金 元 玄		효성왕 2년(738) 3월	
金 標 石	이 찬	혜공왕 8년(772) 정월	衛尉員外少卿
失 名		" 10년(774) 정월	員外衛尉卿

\* 申滢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339쪽에서 전재.

<표 3>에 의하면 신년하례사인 하정사는 성덕왕때 집중적으로 나타난 사절로 새해초(정월~4월)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당에서 官職을 받았으며, 1년에

28) 이러한 《三國史記》(권 8)의 기록과 같은 내용이 《冊府元龜》(권 971, 外臣部 16, 朝貢 4)에도 보인다. 다만 《삼국사기》에는 朴裕로 나와 있으나, 《책부원구》에는 朴祐로 되어 있다.

1회에 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역시 進貢과 回賜를 통해 문물교류의 역할을 하였음은 조공사와 같다.<sup>29)</sup>

통일신라의 대당외교에 큰 몫을 차지한 사절에는 宿衛가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王子로서 唐廷에서 시위케 하는 人質’로 본 이래,<sup>30)</sup> 당의 입장에서 접근한 ‘外人宿衛’와<sup>31)</sup> ‘신라의 외교적 교량인으로서의 宿衛外交’라는 해석으로 본격화되었다.<sup>32)</sup> 결국 숙위가 質子로서 출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sup>33)</sup> 다양한 외교직능을 다한 존재로서 신라통일전쟁이나 외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절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다만 그것이 고정된 성격의 것이 아니라 통일전쟁기, 무열전제왕권기, 하대의 귀족 갈등기에 있어서 각기 그 필요에 따라 직능과 역할이 달랐다. 다시 말하면 숙위는 7세기 중엽 3국간의 경쟁적인 대당외교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김춘추가 조공·인질·국학입학 등과 같은 당시 외교를 결합시킨 김춘추 外交의 결실로 나타났으며, 김춘추의 두 아들(文王·仁間)이 숙위로서 통일전쟁과 외교에 큰 역할을 다했던 것이다.

그러나 통일 후 양국간의 빈번한 교류와 중대 전제왕권의 확립에 따라 숙위는 문물교류자 내지는 宿衛學生 안내자 역할을 다하였다. 이어 하대사회에서는 단순한 質子로서의 지위로 하락하였으나 외교사절의 직능은 다했다. 결국 숙위는 나당간에 존재한 외교사절로서 조공사·무장·인질·문물교류 등 다양한 임무를 갖춘 최초의 외국주재사절이었다고 하겠다.<sup>34)</sup> 통일신라의 숙위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29) 申滢植, 앞의 책(1984), 339~340쪽.

30)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東洋文庫, 1954), 433쪽.

小田省吾, 《朝鮮史大系》上世史(1927), 120쪽.

李丙燾, 《譯註三國史記》(박문서관, 1941), 21쪽.

金庠基, 앞의 책, 9쪽.

31) 卞麟錫, 〈唐宿衛制度에서 본 羅唐關係〉(《史叢》 11, 1966), 50~66쪽.

32) 申滢植, 〈新羅의 對唐交涉上에 나타난 宿衛에 대한 一考察〉(《歷史教育》 9, 1966, 99~163; 앞의 책, 1984), 352~390쪽.

33) Lien-Shen Yang, Hostages in Chinese History(Studies in Chinese Institutional History, Harvard Univ. Press, 1960), pp. 43~57.

梁起錫, 〈三國時代 人質의 性格에 대하여〉(《史學志》 15, 1981), 39~66쪽.

34) 申滢植, 앞의 책(1984), 359~387쪽.

〈표 4〉

통일신라의 宿衛

내용 시기	성명	파견 시기	임기	관 등	당의 관직	귀국 후 활동
통일전	金文王	진덕왕 2년(648)	5년	파진찬	좌무위장군	군주·시중
	金仁問	진덕왕 5년(651)	22년	"	좌영군위장군	백제 정벌
	金三光	문무왕 6년(666)	3년	대아찬	좌무위익부중랑장	고구려 정벌
중 대	金德福	문무왕 14년(674)	1년	대나마		역법 전래
	金守忠	성덕왕 13년(714)	3년	아 찬		유교경전 전래
	金嗣宗	" 27년(728)	1년	(왕제)	과의	
	金志滿	" 29년(730)	"	(왕질)	태복경	
	金思蘭	" 32년(733)	"	(왕족)	태복경	발해 토벌
	金忠臣	" 32년(733)	"	(왕제)	좌평군위원외장군	말갈 토벌
	金志廉	" 33년(734)	"	(왕질)	홍로서경	
하 대	金獻忠	애장왕 7년(806)	1년	(왕자)	비서감	
	金士臣	헌덕왕 1년(809)	"	(왕족)		
	金 昕	" 17년(825)	"	(왕족)	태상경	
	金義琮	흥덕왕 11년(836)	"	(왕자)		國相·시중
	金忠臣	희강왕 2년(837)	"	(왕족)		
	金 因	경문왕 10년(870)	"	사 찬		

\* 申滢植, 《統一新羅史研究》, 299쪽에서 전제.

〈표 4〉에서 살펴볼 때 숙위는 신라의 대당외교를 통합한 사절로 통일 전에는 백제·고구려정벌의 선봉장이었으며, 귀국 후 軍主·侍中으로서 정치일선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중대에서는 문물교류자로서 당의 선진문화를 신라에 전달해 주었으며, 하대에는 정치적 추방(외유)에 따른 인질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외교적 사절이 김씨왕족에게만 허용된 왕권비호의 수단이었음은 물론이다.

그외 통일신라의 대당외교에는 告哀使·謝恩使·進賀使·請兵使·謝罪使란 이름의 사절이 있었다.<sup>35)</sup> 그러나 이들도 결국은 건당사란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여기에 숙위학생이 나말에 주로 활동을 하게 된다.<sup>36)</sup> 다만 金巖

35) 申滢植, 위의 책, 339~345쪽.

36) 申滢植, 〈宿衛學生考〉(《歷史教育》11·12, 1969; 위의 책).

· 金雲卿 이후 숙위학생들은 주로 外職에 제수되었으며, 文翰職에 진출하고 있어 왕권강화의 측근정치 지향에 기여하였다.<sup>37)</sup> 무엇보다도 崔致遠의

征伐은 있으나 戰爭이 없어야 하는 것은 실로 王道에 부합하는 것이다. 무기(干戈)를 녹여 농기를 만들어 오랫동안 부귀토록 할지이다(《東文選》권 3, 賀殺黃巢表).

라는 平和·恤民·勸農思想은 나말여초의 혼란을 극복하는 정신적 지표가 되었으며, 王建으로 향하는 시대정신을 제시할 수 있었다.<sup>38)</sup> 더구나 최치원을 비롯한 유교적 지식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은

㉔ 3畏는 3歸와 비교되며, 5常은 5戒와 같은 것이다. 王道를 능히 실천하는 것은 佛心에 부합하는 것이다(〈聖住寺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 《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㉕ 如來와 周孔은 비록 각기 시작하였으나, 근본으로는 한 곳에 귀일한다. 양자를 겸하지 못한 자는 사물의 이치를 이해할 수 없다(〈雙谿寺眞鑑禪師大空塔碑〉, 《朝鮮金石總覽》上).

㉖ 仁心이 곧 佛心이며, 부처의 뜻은 仁과 통한다(〈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 《朝鮮金石總覽》上).

와 같이 儒佛의 집합이며 風水思想과도 부합되어 訓要十條나 여초의 시대정신에 바탕이 되었다.<sup>39)</sup> 이러한 최치원의 3교관은 유교를 기저로 하면서 불교와 도교의 사상을 수용·섭취하여 3교간의 합치점을 찾아 사회의 화합과 화해를 추구하는 국가재통일의 정신이었다.<sup>40)</sup> 더구나 賓貢及弟子들이 문한기관이나 中事省 또는 近侍職에서 활동함으로써<sup>41)</sup> 유교정치가 이루어졌으며, 또

——, 〈羅末麗初 渡唐留學生 再論〉(《邊太燮博士回甲紀念論叢》, 1985 ; 앞의 책, 1990).

李基東, 〈新羅下代賓貢及第者の 出現과 羅唐文人의 交驛〉(《全海宗博士華甲紀念論叢》, 1979 ; 《新羅骨制品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1984).

金世潤, 〈新羅下代の 渡唐留學生에 대하여〉(《韓國史研究》 37, 1982).

37) 李基東, 위의 책, 264쪽.

38) 申滢植, 앞의 책(1984), 452쪽.

39) 申滢植, 위의 책, 454쪽.

40) 李在云, 〈孤雲 崔致遠의 三教融合論〉(《先史와 文化》 9, 1997), 51쪽.

한 이들이 국사편찬에 참여함으로써 여초의 역사편찬을 가능케 하였다.<sup>42)</sup>

이와 같이 신라와 당과의 관계는 단순히 정치·외교의 관련만이 아니라, 학술·사상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줌으로써 신라사회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표적인 遣唐使(조공사·하정사·숙위)의 활동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신라 遣唐使의 활동

인명 \ 내용	형 태	최 후 관 등	당에서의 활동	귀국 후 활동
金 春 秋	조공사	이 찬	청병사	무열왕으로 등장
金 文 王	숙 위	"	청병사	시중
金 法 敏	조공사	파진찬	태평송 헌진	병부령·문무왕으로 등장
金 仁 問	숙 위	대각간	청병사	군주, 백제 정벌
金 三 光	"	이 찬	청병사	집정, 고구려 정벌
金 忠 臣	"	"		시중·상대등
金 義 忠	하정사	"		시중
金 隱 居	조공사	"		시중, 모반(피살)
金 俊 邕	"	파진찬		시중·병부·소성왕으로 등장
金 彦 昇	"	이 찬		병부령·사신·헌덕왕으로 등장
金 昇	숙 위	"		국상
金 義 琮	"	"	사은사	시중

\* 申滢植, 《統一新羅史研究》, 300쪽에서 전재.

<표 5>에 의하면 신라의 入唐使 중에 왕으로 등장한 인물은 金春秋(무열왕)·金法敏(문무왕)·金俊邕(소성왕)·金彦昇(헌덕왕) 등 4명이나 된다. 그리고 宰相(시중·상대등·병부령·사신)으로 활동한 인물은 金文王 이후 金義琮까지 9명이나 되어, 그들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입당사로의 발탁은 최

41) 李基東, 앞의 책, 263쪽.

42) 申滢植, <新羅人の 歴史認識과 그 編纂>(《白山學報》 34, 1987; 앞의 책, 1992, 227~228쪽).

고 정치실력자로의 진출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라 건당사의 지위와 자격을 고려할 때, 당의 사절(持節使)도 大文豪・碩學 또는 정치적 위상이 높은 인물이 선발되었다. 당나라의 사신 중에서 관직이 알려진 인물은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당의 持節使

인명	항목	관 직	과 건 연 대	임 무
劉 仁 軌		遼東行軍副大總管	문무왕 8년(668)	황제칙서 전달
邢 璠		左贊善大夫・鴻臚少卿	효성왕 2년(738)	책봉(효성왕)
盧 元 敏			성덕왕 11년(712)	왕명 개정요구
魏 曜		贊善大夫	경덕왕 2년(743)	책봉(경덕왕)
歸 崇 敬		倉部郎中	혜공왕 4년(768)	” (혜공왕)
蓋 塤		戶部郎中	선덕왕 6년(785)	” (선덕왕)
韋 丹		司封郎中	원성왕 14년(798)	” (소성왕)
元 季 方		兵部郎中	애장왕 6년(805)	” (애장왕)
崔 廷		職方員外郎	헌덕왕 1년(809)	” (헌덕왕)
源 寂		太子左諭德	흥덕왕 2년(827)	” (흥덕왕)
胡 歸 厚		太子右諭德	경문왕 5년(865)	” (경문왕)

<표 6>에 의하면 당의 사신은 주로 책봉사인 데 대체로 정4품의 御史中丞으로서<sup>43)</sup> 당대의 석학이며<sup>44)</sup> 귀승경・위단・원계방・원적 등 대표적인 巨儒였다.<sup>45)</sup> 이러한 사실은 신라를 君子之國 文化之鄉임을 인정하여 遣新羅使의 선발에 신중을 기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통일신라와 당과의 외교관계를 살펴보았다. 조공으로 대표되는 신라의 대당외교는 南北朝 이래 성립되면서 당대에 이르러 전형적인 발전을

43) 歸崇敬은 倉部郎中兼御史中丞이었으며, 그외 韋丹・元季方・崔廷・源寂・胡歸厚 등도 정4품(下)의 御史中丞을 겸하고 있었다. 이 관직은 刑法・典章・糾正之事를 맡는 御史臺의 고위직이다(《新唐書》권 48, 百官 3).

44) 李基東, 앞의 책, 292~293쪽.

45) 歸崇敬은 《新唐書》권 164, 韋丹은 권 197(循吏), 元季方은 권 201(文藝 上)에 立傳되어 있다.

이루어 고려·조선시대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다만 中華思想의 대외형태인 조공이 중국에 정치적으로 예측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물의 교류와 외교적 자립’을 유지하였으며, 중국적 세계질서에 참여함으로써 東亞世界の 형성에 기여할 수 있었다.<sup>46)</sup> 특히 나당간의 빈번한 관계 속에서 盛唐文物의 수용과 西域文化의 접촉이 가능해져 신라문화의 질적 성장을 가져왔으며, 대당 수출품에 신라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어 신라의 산업과 기술의 향상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건당사의 활동을 통해 당대 정치실력자들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그외 승려·상인들의 활동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sup>47)</sup>

〈申澄植〉

## 2. 일본과의 관계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자, 왜국은 백제의 부흥운동에 군사원조를 하여 신라·당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여 백강구의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그러나 문무왕 8년(668)에는 신라와 왜국간의 국교가 성립되어 이후 양국은 8세기 후반까지 사신을 교환하고 있으며, 9세기에는 신라상인과 해적들이 활약하여 양국간에 사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

통일신라시대의 신라와 왜국의 관계에 대해 우리 나라 학계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이다.<sup>1)</sup> 우리 나라에서 연구가 지체

46) 高明士, 《唐代東亞教育圈的形成－東亞世界形成史の一側面－》(1983, 中華叢書) 참조.

47) 權惠永, 〈三國時代新羅求法僧의 活動과 役割〉(《清溪史學》 4, 1987) 참조.

1) 통일신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다룬 우리 학계의 연구는 대강 다음과 같다.  
申澄植, 〈統一新羅의 對日關係〉(《統一新羅史의 研究》, 三知院, 1990).  
金恩淑, 〈8세기의 新羅와 日本의 關係〉(《國史館論叢》 29, 國史編纂委員會, 1991).  
——, 〈9世紀의 新羅와 日本의 關係〉(《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新しい歴史表象をめざして－歴史研究と歴史教育との對話－》, 上越教育大, 1997).  
洪淳烈, 〈統一新羅의 對日本關係研究〉(《國史館論叢》 31, 1992).

된 원인은 통일신라시대의 양국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일본측 史書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측 사료만을 가지고 통일신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 《三國史記》는 이 시기에 일본에서만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어 이들만을 근거로 하여 양국 관계를 복원한다면 일본국이 신라에 일방적으로 사신을 파견한 관계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통일신라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일본측 사료로는 《日本書紀》·《續日本紀》·《日本後紀》·《續日本後紀》·《文德天皇實錄》·《日本三代實錄》등 관찬사서가 있다. 이 사료들 중에서 《일본서기》와 《속일본기》의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기사에서는 일본중심적인 서술이 많이 보이므로, 이를 이용할 때에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日本後紀》이후의 사서들은 비교적 실록적인 성격이 강하고, 대외관계 서술에 있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양국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

### 1) 7세기 후반~8세기 일본과의 국가간 교섭

668년(文武王 8년) 신라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외교관계를 재개한 이후

- 
- 崔在錫, 〈統一新羅와 日本과의 關係〉(《정신문화연구》 43, 1991).
- , 〈統一新羅의 日本政治 指導〉(《韓國學報》 71, 1993).
- 李炳魯, 〈九世紀初期의 “環シナ海貿易圈”의 考察—張保皋と對日交易を中心として〉(《神戸大學史學年報》 8, 1993).
- , 〈九世紀초기의 “環지나海무역권”의 고찰—장보고와 對日교역을 중심으로〉(《日本學誌》 15, 啓明大, 1995).
- , 〈寬平期(890년대)일본의 대외관계에 관한 일고찰〉(《日本學誌》 16, 1996).
- , 〈고대일본열도의 ‘신라상인’에 대한 고찰〉(《日本學》 15, 동국대, 1996).
- , 〈일본 지배층의 對新羅觀정책 변화의 고찰—주로 9세기를 중심으로—〉(《大丘史學》 51, 1996).
- , 〈8세기 일본의 외교와 교역—나일관계를 중심으로〉(《日本歷史研究》 4, 1996).
- , 〈일본열도의 “동아시아 세계”에 관한 일고찰—주로 9세기의 큐슈지방을 중심으로〉(《日本學誌》 17, 1997).
- 윤선태, 〈752년 신라의 대일교역과 買新羅物解—正倉院 소장 貼布記의 해석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24, 1997).
- 南漢鎬, 〈9世紀 後半 新羅商人의 動向〉(《靑藍史學》 1, 한국교원대, 1997).



양국은 활발히 교류하여, 신라에서 공식적인 사신을 파견한 마지막 해인 779년(惠恭王 15년)까지 신라는 일본에 45회 사신을 파견하였고 일본은 신라에 25회 사신을 파견하였다. 원래 양국은 백제부흥전쟁의 전쟁상대국이었으나,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당의 압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sup>2)</sup> 7세기 후반부터 8세기초까지 신라는 일본에 율령국가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여러 가지 문물을 전해 주었고, 일본은 이 시기에 율령국가체제를 갖추게 되었다.<sup>3)</sup>

그러나 신라와 당의 관계가 점차 호전되고, 701년 大寶(타이호우)律令의 완성을 계기로 일본의 율령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양국은 외교형식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다. 당을 본따서 천황제 율령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일본 조정은 대외관계에서도 신라를 하위에 놓는 외교형식을 고집하였고, 신라조정 역시 일본사신에 대한 외교의식에서 일본을 하위에 놓는 외교형식을 고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sup>4)</sup> 특히 727년(聖德王 26년) 일본과 발해의 외교관계가 시작되고 733년 신라와 당의 공동작전 수행으로 나당관계가 안정되면서, 734년 이후 외교형식문제로 인한 양국의 갈등은 표면화되어, 737년에 일본조정에서는 신라공격이 논의되기도 하였다.<sup>5)</sup>

일본측은 신라사신을 임경시켜 ‘蕃國’사신으로 대접하고자 하였으나, 신라는 이에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계속되었다. 신라는 738년(孝成王 2년) 이후 일본이 요구하는 외교형식을 무시함으로써 入京하여 賓禮를 받는 대신 大宰府에서 교역하고 돌아가는 편을 택하였다. 통상이 사행의 중요목적이 되면서 신라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신단을 파견하였고,<sup>6)</sup> 752년(景德王 11년)에는 700여 명의 사신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의 신라사신에 대한 요구도 집요하여 신라가 이에 반발하자 759년~763년에는 신

2) 김은숙, <백제부흥운동이후 天智朝의 국제관계> (《日本學》 15, 1996), 167~171쪽.

3) 鈴木靖民, <日本律令制の成立・展開と對外關係> (《古代對外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5), 13~21쪽.

4) 金恩淑, 앞의 글(1991), 108쪽.

5) 金恩淑, 위의 글, 117~119쪽.

6) 内藤雋輔, <新羅人の海上活動について> (《朝鮮史研究》, 東洋史研究會, 1961), 338쪽.  
末松保和, <日韓關係> (《日本上代史管見》, 私家版, 1963), 106쪽.

라공격계획까지 수립되었다. 764년 이후 신라는 일본이 요구하는 외교형식을 무시하는 대신,<sup>7)</sup> 당과 일본을 매개하는 역할을 추가함으로써 대재부에서 교역하는 편을 택하였다.<sup>8)</sup> 즉 764년에는 유학승 戒融(카이유우)의 귀국 후 소식을 알아 봐 달라는 당 칙사의 요청을 구실로 사신을 파견하였고, 769년(혜공왕 5년)과 774년에는 일본의 건당대사 藤原河清(후지와라노카세이, 본명은 藤原清河; 후지와라노키요카와)의 서신의 전달을 위해 사신을 파견하였다. 또한 764년 이후 신라와 일본간의 외교는 執事省과 대재부간의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당외교 교통로 확보에 있어서 신라의 협조가 필요하였던 일본의 조정은 779년 대재부 관리를 신라조정에 파견하여 당에서 귀국도중 탐라에 표착한 遭唐判官과 당의 사신을 일본에 보내줄 것을 의뢰하였다. 신라는 일본조정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신라·발해에 대해 일본 우위의 외교형식을 확립하려 하였던 光仁(코우닌)조정이 다시 신라왕의 ‘表’를 요구하였으므로, 이후 신라는 더 이상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sup>9)</sup> 신라가 사신을 파견하는 공식적인 교섭을 끝낸 이유로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발해와 당의 관계개선으로 인한 동아시아의 긴장완화로 신라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굳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sup>10)</sup>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8세기 중엽부터 활약하는 신라의 민간상인의 활약으로 공적 교역의 필요성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sup>11)</sup>

《三國遺事》에는 신라와 일본과의 공적인 관계가 단절된 786년(원성왕 2년) 일본왕 文慶이 신라를 침범하려다가 적병을 물리치는 萬波息笛이 있다는 말

7) ‘調’라는 용어 대신 769년의 김은거는 ‘土毛’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774년의 金三玄은 ‘國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8) 金恩淑, 위의 글(1991), 128~130쪽.

9) 石井正敏, 〈光仁・桓武朝の日本と渤海〉(《日本古代の傳承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1995), 433~435쪽.

10) 李成市, 《東アジアの王權と交易》(青木書店, 1997), 176쪽.

11) 石井正敏, 〈八・九世紀の日羅關係〉(《日本前近代の國家と對外關係》, 吉川弘文館, 1987), 288~293쪽.

———, 〈九世紀の日本・唐・新羅三國間貿易について〉(《歴史と地理》 394, 史學地理學同友會, 1988), 2쪽.

을 듣고 金을 보내 만파식적을 청하였다는 내용의 설화가 있다.<sup>12)</sup> 일본측 기록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이 보이지 않으며, 당시 일본과 신라의 관계가 특별히 긴장되었음을 말해주는 기사도 보이지 않지만, 당시 되풀이되는 가뭄으로 백성이 굶주리고 정치가 불안정하였으므로, 일본이 침범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신라인 사이에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790년 一吉浪 伯魚를 발해에 보낸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해와의 관계를 모색하여 신라가 고립되는 일을 미리 방지하고자 한 것이었다.<sup>13)</sup>

일본도 신라와의 공적인 교류가 중단되자 790년대 이후에는 발해와의 교류를 증대하였다. 즉 발해는 795년에 일본의 재당유학승 永忠(에이쥬우)의 글을 전하면서 당과 일본의 중개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본조정이 신라에 기대하였던 역할을 이어받게 되었다. 당시 일본과 활발한 교역을 원하였던 발해의 康王은 國書에서 桓武(칸무)천황의 德을 강조하면서 사신과견의 기한을 단축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조정은 799년 聘期의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sup>14)</sup> 일본조정은 804년에는 발해사신들이 자주 도착하는 能登(노토)國에 客院을 건설하여, 발해사신은 반드시 筑紫를 경유하도록 한 773년의 금지를 풀었다.

## 2) 9세기 전반 일본의 사신과견

그러나 일본과 신라에서 외교관계를 재개하려는 움직임 또한 8세기말~9세기초에도 있었다. 즉 일본의 桓武조정에서는 799년 大伴宿禰麻呂(오오토 모노미네마로)가 견신라사로 임명되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신과견은 중지되었다.<sup>15)</sup> 한편 신라도 802년(애장왕 3년) 왕의 당숙 均貞을 일본에 보내 외교관계를 재개하고자 하였으나, 균정의 거부로 실패하였다.<sup>16)</sup> 양국간의 교섭은 803년 일본이 견당사를 파견하면서 표착할 경우에 대비하여 신라측에

12) 《三國遺事》 권 2, 紀異 2, 元聖大王.

13) 《三國史記》 권 10, 新羅本紀 10, 원성왕 6년 3월.

14) 石井正敏, 앞의 글(1995), 442~443쪽.

15) 《日本後紀》 권 8, 延暦 18년 4월 경인 및 5월 임신.

16) 《三國史記》 권 10, 新羅本紀 10, 애장왕 3년 12월.

협조를 요청하는 사신을 파견하여 재개되었으나,<sup>17)</sup> 이 건당사선은 태풍으로 난파하였다. 일본조정은 804년 3월에 다시 건당사선을 파견하면서 신라에 황금 300兩을 보내고 건당사선이 표착할 경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18)</sup> 건당사선 4척 중에서 2척(제3선·제4선)이 행방불명되자, 804년 9월 일본은 신라측에 그 행방을 알아보아 주기를 부탁하였다.<sup>19)</sup>

805년에 건당사선이 신라 남해안을 향해하는 北路를 통해 일본으로 돌아간 후, 일본조정은 806년·808년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였으나,<sup>20)</sup> 양국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한편 발해국서의 형식이 문제가 되어 일본과 발해의 사이도 점차 멀어져가, 811년의 건발해사 파견을 끝으로 일본은 더 이상 발해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고, 821년 발해사신 접대비의 과중함을 이유로 일본조정은 12년으로 통교기한을 정하였다. 상인과 다름없는 발해사신들을 사신으로 대접하지 말자는 주장도 나왔으나,<sup>21)</sup> 922년까지 발해에서만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는 관계가 유지되었다.

일본은 836년에도 건당사의 배가 신라에 표착할 경우에 대비하여 紀三津(키노미즈)을 신라에 파견하였으나, 국서의 내용과 달리 신라와의 통호를 요구하는 기삼진의 언행에 의심을 품게된 신라측은 이를 거절하였다.<sup>22)</sup> 기삼진이 가지고 온 太政官(다이조우칸)의 牒文은 건당사가 표착할 경우에 당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이었으나, 기삼진은 자신이 신라와의 「通好」를 위하여 왔으며, 또한 자신이 당에 파견된 사신인 것처럼 말한 듯하다. 이에 대해 신라조정에서는 태정관 침문의 내용과 기삼진의 말이 다르다면서 그 모순을 질책하는 執事省牒을 보냈다. 당시 신라는 선덕왕대로 당에 빈번히 사신을 파견하였고, 828년 이후 張保臯가 청해진대사로서 당과

17) 《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애장왕 4년 7월조에서는 803년 일본국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데, 《日本後紀》에서는 803년 일본이 건당사를 파견하면서, 大宰府로 하여금 신라에 그 사실을 알렸으나, 신라측의 답신이 없었다고 한다(《日本後紀》권 12, 延暦 23년 9월 기축).

18) 《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애장왕 5년 5월.

19) 《日本後紀》권 12, 延暦 23년 9월 기축.

20) 《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애장왕 7년 3월·9년 2월.

21) 《類聚國史》권 194, 殊俗, 渤海 天長 3년 3월 무진.

22) 《續日本後紀》권 5, 承和 3년 윤5월 신사.

일본을 무대로 활발히 해상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일본조정에도 기삼진과 같이 신라와의 교역이 확대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었던 듯하다.

836년의 기삼진의 사행 실패로 인해 일본의 건당사파견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836년에 출발한 건당사선은 난파하거나 회선하여 다음해에 다시 출발하였으나 壹岐島・值賀島에 표착하였고, 그 후 부사 小野朝臣篁(오노노아손타카무라)을 비롯한 5명이 승선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838년 다시 출발한 건당사는 839년 귀국할 때에는 楚州에서 신라선 9척을 고용하여 귀국하였다. 630년에 시작된 일본의 건당사는 이후 더 이상 파견되지 않았다.<sup>23)</sup>

일본은 839년 이후에는 신라·당과 국교를 가지지 않았다. 단지 일본을 왕래하는 발해사신을 통해 발해와만 외교관계를 가지게 된다. 대외적으로 사신파견이 끝나는 이 시기를 경계로 하여 일본 지배층은 일본을 神國으로 생각하는 중세적인 王土王民사상과 神國사상을 키워나가게 되었다.<sup>24)</sup>

### 3) 신라상인에 의한 무역의 전개

779년 이후 신라가 사신파견에 의한 공적인 무역을 포기한 것은 신라상인의 활동을 통해 얼마든지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조정도 8세기 후반부터 신라상인들이 일본에 많이 왕래하자 굳이 신라·당과의 공적인 무역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768년 稱徳(쇼우토쿠)天皇은 좌우대신 등 고위관료와 황족에게 신라 交關物을 사도록 총액 85,000屯의 大宰綿을 지급하고 있는데,<sup>25)</sup> 이는 신라상인들을 상대로 하는 교역체제를 일본 조정이 인정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sup>26)</sup> 이즈음에는 대재부 부근에 신라인과 무역을 하는 상인층이나 商圈이 형성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조정은 774년에는 신라인이 표착하였을 경우에 배를 수리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류민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신라상인들의 왕래를 장려하였

23) 佐伯有清, 《最後の遣唐使》(講談社, 1978).

24) 村井章介, 〈王土王民思想と九世紀の轉換〉(《思想》847, 1995), 36~37쪽.

25) 《續日本紀》권 29, 神護慶雲 2년 10월 갑자.

26) 東野治之, 〈鳥毛立女屏風下貼文書の研究〉(《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塙書房, 1977), 305쪽.

다.<sup>27)</sup> 신라인들이 일본에 많이 왕래하자 815년에는 對馬島에 신라어 통역까지 설치하였다.

9세기에 신라인 상인층은 당과 일본을 중계하는 무역을 담당할 정도로 성장하였는데, 그 상인층은 在唐신라인이 주체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28)</sup> 신라인들은 산둥반도의 登州, 양자강구와 長安, 洛陽을 연결하는 대운하에 연해있는 楚州·泗州와 같은 상업경제의 요지에 거류지 新羅坊을 형성하였는데, 이 신라방에서는 일종의 자치가 이루어졌다. 재당 신라인들은 상인조직을 이루어 일본의 견당사나 입당승들이 일본에 귀국할 때에 동행하여 무역을 하면서, 당·신라·일본 삼국간 무역에 의해 蓄財를 하였다.

840년에는 삼국간 무역을 장악하면서 반자립적인 해상세력으로 성장한 장보고가 부하 李忠을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과 조공 형식의 공적인 교역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나,<sup>29)</sup> 일본조정은 신라왕이 파견한 사신 이외에는 공식사절로 대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李忠이 가지고 간 물건은 민간교역을 허락하였고 그에게 식량을 주도록 하였다.<sup>30)</sup> 이러한 조치는 일본조정의 일관된 입장으로, 무역은 확보하지만 타국의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으려는 방위적인 성격의 것이었다.<sup>31)</sup> 일본조정은 9세기 중엽 이후 외국사절이 아닌 商客에게도 客館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정이 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공적인 시설에서 상객이 체재하도록 하였다.<sup>32)</sup>

일본에서 신라와의 교역에 종사한 것은 平安京(헤이안쿄)의 귀족들이 중심이었지만 재지유력농민과 지방관도 있었다. 筑前守로 재임하던 840년에 장보고와 거래가 있었던 文室宮田麻呂(훈야노미야타마로)는 임기 후에도 현지에

27) 《類聚三代格》권 18, 夷俘并外蕃人事, 太政官符(應大宰府放還流來新羅人事).

28) 石井正敏, 〈10世紀の國際變動と日宋貿易〉(《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 角川書店, 1992), 347~348쪽.

李炳魯, 앞의 글(1996b), 256~260쪽.

29) 浦生京子, 〈新羅末期の張保皐の擡頭と反亂〉(《朝鮮史研究會論文集》 16, 1979), 60쪽.

30) 《續日本後紀》권 9, 承和 7년 12월 계묘삭 기사·권 10, 承和 8년 2월 임인삭 무진.

31) 石上英一, 〈古代國家と對外關係〉(《講座日本歴史》 2, 東京大學出版會, 1984), 260~261쪽.

32) 田島公, 〈大宰府鴻臚館の終焉〉(《日本史研究》 389, 日本史研究會, 1995), 24쪽.

남아 무역에 종사하였는데, 그는 신라상인의 물품을 국내에서 매각하였을 뿐 아니라, 絁를 미리 건네주고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고 있다. 宮田麻呂는 기내에 광대한 영지와 平安京과 瀬戶(세토)内海의 교통 요지인 難波(나니와)에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제력의 바탕에는 그가 무역을 통해 축적한 부도 크게 작용하였다.<sup>33)</sup>

한편 신라상인들이 일본을 왕래하자 일본인들의 경계심도 고양되어 신라인과 충돌하기도 하였다. 812년에 신라 해적선의 대마도 출몰사건이 보고되자, 일본조정은 신라 인근지역들에 신라에 대한 경계와 방위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sup>34)</sup> 835년에는 대재부의 건의로 壹岐(이키)國의 전략상 요소 14개소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였고, 843년에는 대마도의 경비를 강화하고 849년에는 弩兵을 배치하였다.<sup>35)</sup>

842년 이후 교역을 위해 일본을 왕래하는 신라인들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즉 842년 8월 대재부 大貳 藤原朝臣衛(후지와라노아손마모루)가 신라상인들이 사실은 일본을 정탐하기 위해 일본을 왕래하는 것이라면서 신라인들의 일본 입국을 금지하도록 조정에 요청하였다.<sup>36)</sup> 이것은 신라상인의 활발한 왕래가 일부 대재부 관리들로 하여금 신라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한 것을 말해준다.<sup>37)</sup> 이러한 보고에 대해 일본조정은 종래의 ‘歸化’사상을 내세워, 신라인의 왕래를 막을 수 없음을 표명하고 있다.<sup>38)</sup>

9세기에 신라상인들이 활약하면서 일본에 표착하는 신라인들도 많아지는데, 일본조정은 표착한 신라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귀국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을 주어 귀국시켰다. 834년 대재부 해안에 도착한 신라인들을 일본인들이 공격하여 상처입히자, 仁明(닌묘우)조정은 대재부 관리를 책망

33) 戸田芳實, 《日本領主制成立史の研究》(岩波書店, 1967), 136쪽.

34) 《日本後紀》권 22, 弘仁 3년 정월 경신삭 갑자.

35) 《續日本後紀》권 4, 承和 2년 3월 병오삭 기미·권 13 承和 10년 8월 정사삭 무인·권 19, 嘉祥 2년 2월 경술.

36) 《續日本後紀》권 12, 承和 9년 8월 임술삭 병자.

37) 佐伯有清, 〈九世紀の日本と新羅〉(《古代の政治と社會》, 吉川弘文館, 1970), 299쪽.

38) 《類聚三代格》권 18, 夷俘并外蕃人事, 承和 9년 8월 15일 태정관부(應放還入境新羅人事).

《續日本後紀》권 12, 承和 9년 8월 임술삭 병자.

하고 신라인들을 치료하고 양식을 주어 돌려 보냈다.<sup>39)</sup> 표착한 신라인 중에서 귀국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어 신라에 돌려 보내는 일본정부의 정책은 9세기 후반에도 계속되었다. 즉 856년에는 표착한 신라인 30명을 식량을 주어 돌려 보내고,<sup>40)</sup> 863년과 864년에는 博多津에 표착한 승려 3명과 丹後國에 표착한 신라상인 57명, 石見國 美乃郡에 표착한 신라인 24명에게 양식을 주어 돌려 보냈다.<sup>41)</sup> 869년에도 對馬島에 표류한 신라인 7명에게 식량을 주어 돌려 보냈다.

이것은 일본인이 당을 왕래하거나 신라에 표착한 경우에 신라의 협조를 배려한 정책이었다. 신라선의 우수성과 신라의 남쪽을 통과해야 하는 항로 때문에, 당에서 귀국하는 일본사신이나 승려들은 신라선을 임대하여 항해에 익숙한 신라인을 고용하여 귀국하는 일이 많았다.<sup>42)</sup> 845년 일본인이 신라에 표착하였을 때, 신라정부도 표류한 일본인을 돌려 보내고 있다.<sup>43)</sup>

#### 4) 9세기 후반 일본의 신라에 대한 경계강화

일본조정의 신라에 대한 경계심은 860년대 후반에 강화된다. 즉 866년 신라에서 兵弩제조기술을 배워 對馬島 점령계획을 세운 肥前國 基肆郡 사람들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安藝守였던 越智宿禰貞原(오치노수쿠네사다하라)가 신라사람과 반역을 꾀하였다는 밀고가 있었다.<sup>44)</sup> 뒤 사건은 무고임이 드러났으나, 위의 두 사건은 신라에 대한 위기의식이 일본에 팽배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해 11월 淸和(세이와)조정은 신라 인근지역의 지방관들에게, 국가를 鎮護해달라는 기도를 하도록 명령을 내렸고, 867년에는 四天王像을 만

39) 《續日本後紀》권 3, 承和 원년 2월 임오삭 계미.

40) 《日本文德天皇實錄》권 8, 齊衡 3년 3월 임자.

41) 《日本三代實錄》권 7, 貞觀 5년 4월 21일 계축·11월 17일 병오; 권 8, 貞觀 6년 2월 17일 갑술.

42) 《續日本後紀》권 8, 承和 6년 8월 경술삭 기사·권 13, 承和 10년 12월 계해·권 18, 承和 15년 3월 경신삭 을유.

43) 《續日本後紀》권 15, 承和 12년 12월 갑술삭 무인.

44) 《日本三代實錄》권 13, 貞觀 8년 7월 15일 정사·권 16, 貞觀 11년 10월 26일 경술.



들어 나누어주고 기도하도록 하였다.

869년 博多津에서 豊前(부젠노)國의 絹綿이 신라 해적선에 의해 약탈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정부의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었다.<sup>45)</sup> 신라가 쳐들어 올 것이라는 점괘를 이유로 蝦夷(에조) 포로들을 구주에 배치해 줄 것을 대재부가 요구하자, 일본조정은 九州지방의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伊勢神宮(이세진구우)과 石清水神社(이와시미즈진자)를 비롯한 전국의 神社에 신라를 막아달라는 기도를 하도록 명령하였다.<sup>46)</sup> 870년에는 신라에 갔다가 도망쳐온 대마도인이 신라가 대마도 점령을 위한 전쟁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일본조정은 신라 인근지역들에 경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八幡大菩薩(하치만다 이보사츠)을 비롯하여 香椎廟・宗像大神・甘南備神에게 기도를 올렸다.<sup>47)</sup>

그러나 당시 신라가 일본공격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국 관계의 악화를 말해주는 사료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가 일본을 칠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866년(景文王 6년)과 867년에 이찬 允興, 이찬 金銳의 반란이 잇따라 일어났고, 867년부터 경주의 전염병 유행, 홍수로 인한 흉년 등으로 국내정세는 혼란하였다. 이러한 신라의 상황은 도적의 발생을 가져왔는데, 위의 신라가 쳐들어 올 것이라는 소문은 신라해적들이 일본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위구심을 표현한 것이다.

신라해적의 絹綿탈취사건 이후 일본을 왕래하며 교역에 종사하던 신라인들과 대재부 관내에 거주하던 신라계 사람들에 대해 박해가 가해졌다. 대재부는 관내에서 교역을 하던 신라인 潤清・宣堅 등 30명을 전면탈취사건의 혐의자로 투옥하였다. 일본조정은 윤청 등을 귀국시키도록 명령하였으나, 대재부는 일본땅에 오래 머문 윤청 등이 신라에 돌아가면 일본의 약점이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대재부는 또한 대재부 관내에 거주하는 신라인들도 신라가 침략해 온다면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일

45) 《日本三代實錄》권 16, 貞觀 11년 6월 15일 신축.

46) 《日本三代實錄》권 16, 貞觀 11년 12월 5일 무자・14일 정유・17일 경자・28일 신해・29일 임자.

47) 《日本三代實錄》권 17, 貞觀 12년 2월 12일 갑오・15일 정유. 이 기사는 신라와 대마도간의 민중의 교류를 말해주는 사료로 해석되기도 한다(山内晉次, 〈九世紀東アジアにおける民衆の移動と交流〉, 《歴史評論》 555, 1996, 58~59쪽).

본조정은 윤청 등 20인의 신라인을 陸奥國・武藏國・上總國 등에 이송하여, 생업에 종사하도록 조치하였다.<sup>48)</sup>

870년에는 일본의 대신라 창구역할을 하던 대재부 관리 중에도 신라와 내통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는 사람이 나타났다. 즉 筑後權史生 佐伯宿禰眞繼(사에키노수쿠네마츠구)는 신라국의牒을 보내면서 대재부의 少貳 藤原朝臣元利萬侶(후지와라노아손겐리마로)가 신라국왕과 통하여 일본을 해치려고 도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일본정부는 檢非違使(케비이시)를 파견하여 眞繼를 조사하고, 元利萬侶를 비롯한 5명을 조사하였다.<sup>49)</sup> 신라국의 첩을 증거로 제시한 점에서 대재부 관리인 등원조신원리만려가 신라 집사성과의 사이에 무엇인가 교섭을 벌였을 수도 있으나, 또한 이 첩이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sup>50)</sup>

일본정부는 876년에는 신라・당과의 교통의 요지인 肥前國에 새로 值嘉嶋郡을 설치하여 방어에 힘쓰고 있으며, 878년에 신라 해적선이 일본으로 올 것이라는 疆日宮의 신탁이 내리자, 伊勢大神宮・疆日宮・八幡宮 등에 기도를 하여 막아 보려고 하고 있다.<sup>51)</sup> 그러나 890년대에는 신라말의 해상세력이 일본 九州지역을 습격하는 해적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일본인의 배외의식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다.<sup>52)</sup>

이렇게 신라의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이 강화되던 860년・870년・880년대에 일본은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있다. 즉 경문왕대인 864년에는 일본사신이 신라에 도착하였고, 879년에는 일본사신이 경주 궁궐의 朝元殿에서 현강왕을 배알하였다.<sup>53)</sup> 또한 883년에도 일본국왕은 사신을 파견하여 황금 300兩과 明珠 10개를 보내고 있다.<sup>54)</sup> 이때 일본은 清和천황, 陽成(요우제이)천황이

48) 《日本三代實錄》권 17, 貞觀 12년 2월 20일 임인・9월 15일 갑자.

49) 《日本三代實錄》권 18, 貞觀 12년 12월 13일 신유・17일 을축.

50) 李炳魯, 앞의 글(1996c), 339쪽.

51) 《日本三代實錄》권 28, 貞觀 18년(876) 3월 9일 정해 및 ; 권 34, 元慶 2년(878) 12월 11일 임신・20일 신사・24일 을유.

52) 《扶桑略記》권 22, 寬平 6년 9월 5일조에 의하면, 894년 9월에 당인이 낀 新羅賊이 대마도를 쳤으나 일본이 이를 막아냈다고 한다.

53) 《三國史記》권 11, 新羅本紀 11, 현강왕 4년 8월.

54) 《三國史記》권 11, 新羅本紀 11, 현강왕 8년 4월.

제위하던 시기지만 이들 사신파견에 대해 일본측의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대제부 관리나 재지 유력자가 일본천황의 사신을 청하였을 수도 있으나,<sup>55)</sup> 표류민 송환이나, 신라해적의 단속을 요청하기 위해 일본조정이 사신을 파견하였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는 없다.

869년의 견면탈취사건 이후에도 표착한 신라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조치가 특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873년에 對馬島에 표착한 신라인 32인들에 대해서도 혹시 일본의 정세를 엿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은 하였지만 억류하지는 못하고 잘 조사한 후에 빨리 돌려보내도록 하였다.<sup>56)</sup> 874년에 대마도에 표착한 金四·金五 등 신라인 12인과 885년에 肥後國 天草郡에 표착한 신라관관 徐善行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sup>57)</sup> 이는 신라인을 억류함으로써 신라정부와 정치적인 마찰이 일어나는 사태를 피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추측되어, 774년의 신라인 표류자 송환에 관한 규정이 계속 유효하였음을 말해준다.

이상 통일신라시대 신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살펴 보았는데, 양국관계의 변화과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7세기 후반 당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적인 교류를 시작한 이후, 신라가 일본의 울령국가 성립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문물을 전해주는 관계가 7세기말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8세기 전반 일본의 울령제정부가 신라와에 일본중심적인 외교형식을 요구하고 신라가 이에 반발하면서 양국관계는 악화되었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신라침공 계획이 수립되기도 하였으나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그 후 동아시아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신라는 779년의 신라사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신을 파견하지 않게 되었고, 일본은 견당사의 파견을 전후하여 견당사가 표착할 때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신을 파견하였다.

양국의 사신파견의 목적도 8세기초까지는 정치적·군사적 목적이 강하였으나, 8세기 중엽 이후에는 경제적 측면도 추가되면서, 신라는 외교형식

55) 遠藤元男, 〈貞觀期の日羅關係について〉(《駿台史學》 19, 1966), 192쪽.

56) 《日本三代實錄》 권 24, 貞觀 15년 12월 22일 계속.

57) 《日本三代實錄》 권 26, 貞觀 16년 8월 8일 갑자·권 47, 仁和 원년 6월 20일 계유.

에 얽매이는 사신파견을 중단하고 그 대신 신라상인을 통한 교역을 선호하게 되었다. 일본도 일본 우위의 외교형식을 부정하는 신라와의 공식적인 관계 유지가 어려웠으므로, 사신접대와 의례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무역 대신 신라상인의 왕래를 통한 민간무역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9세기에는 신라상인의 활약으로 양국 간의 민간교역이 활발해지지만, 한편 이와 함께 신라해적도 발생하게 되어 9세기 후반에는 일본인들의 신라인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적대의식도 확산되게 되었다.

〈金恩淑〉

### 3. 해상활동

#### 1) 항로의 개척과 항해술의 발전

삼국 정립시대의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하여 중국대륙과의 통교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중국과의 교빈은 육로나 해로를 막론하고 두 나라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들 나라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신라가 奈勿王 22년(377) 前秦(351~394)에 入貢한 것이나 26년 衛頭를 보내어 조공한 일들은 모두 고구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sup>1)</sup> 중국 南朝(420~589)와의 교빈도 다를 바 없다. 法興王 8년(521) 백제 사신을 따라 梁(502~556)에 입공한 일은 그러한 예에 속한다<sup>2)</sup>. 신라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당시로서는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서 이들 양국의 주선을 받아야 했다.

1) 《資治通鑑》권 104, 晉紀 26.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내물왕 26년.  
2) 《梁書》권 54, 列傳 48, 諸夷 新羅.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8년.

## (1) 북방해로(노철산항로)

신라가 독자적으로 중국과 직접 교류하여 국제 무역활동에 등장하게 된 것은 眞興王 25년(564) 北齊(550~557)와의 교역에서 비롯된다. 이 때 이미 신라는 대중국교역의 중요한 港浦인 남양만의 唐恩浦(경기도 남양)를 점유하고(552) 있었으므로 바다길을 통한 교역이 손쉬워졌다. 이 뒤로 신라의 중국에 대한 이른바 朝貢貿易은 본격적으로 행해졌다.

당나라 賈耽(730~805)이 저술한 《道里記》<sup>3)</sup>에 보면, 중국에서 신라로 가는 해로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북방해로인 것이다. 이에 의하면 登州(山東省 蓬萊)를 출발하여 동북으로 大謝島(長山島)·鼉欽島(砣磯島)·末島(大·小欽島)·烏湖島(南隍城島)를 거쳐 300리를 나아간다. 그리고 북으로 烏湖海(黃詳川 海面, 老鐵山水道)를 지나 馬石山(老鐵山)의 都里鎮(旅順口)까지 200리를 가서 동쪽으로 靑泥浦(大連 부근)·桃花浦(金縣 淸水河口)·杏花浦(莊河縣 花園口)·石人汪(石城島)·囊駝灣(小洋河口)을 지나 烏骨江(鴨綠江口)까지 800리 길을 간다. 다시 남쪽 해안, 즉 한반도 서해안을 따라 烏牧島(平北 宣川郡)·溟江口(大同江口)·椒島를 지나 長口鎮(黃海 豊川郡)에 이른다. 다시 鵠島(白翎島)·秦王石橋와 麻田島·古寺島(江華島)·得物島(德積島)를 거쳐 唐恩浦(京畿 南陽灣)에 이른다. 이곳은 《도리기》의 종점으로 신라시대에 대중국대륙 교통의 요지 가운데의 하나였다. 당은포에서 육로로 700리 길을 가서 신라의 서울 경주에 도달한다.

이 해로는 곧 중국의 산둥반도 등주를 출발하여 동북쪽으로 발해만의 노철산하구를 거쳐 大連灣의 동쪽을 지나 압록강 하구에 이른다. 여기에서 한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대동강 하구와 초도를 지나 瓮津灣과 강화도·덕적도를 거쳐 남양만에 이른다. 이 뱃길은 진흥왕 13년(552) 신라가 한강유역을 점유한 뒤로 때로는 고구려·백제의 방해로 막히고 위협을 받기도 하였으나 멸망할 때까지 중단없이 이용되었다.

신라와 당 사이의 이 항로는 근해 연안 혹은 섬을 따라 항해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였다. 비록 항해거리가 멀고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비교적

3) 《新唐書》권 43 下, 志 33 下, 地理 7 下.

안전하기 때문에 이른바 「遣使獻貢」이란 정치적·경제적·군사적·문화적 의례적인 교빈관계가 이 항로를 통하여 오래토록 지속되었다.

## (2) 황해횡단항로

黃海橫斷航路는 산둥반도에서 바로 황해를 가로질러서 禮成江·당은포에 이르는 해로로 비교적 일찍부터 개척되었다. 金正浩는 그의 저서 《大東地志》에서 「歷代航路」를 설명하면서 당 顯慶 5년(武烈王 7년, 660)에 唐將 蘇定方(592~667)이 백제를 침공할 때 등주에서 바다를 건너 덕적도로 진군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舊唐書》소정방열전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三國史記》와는 출발지(成山角)와 도착지점(웅진강구)이 다를 뿐이다.<sup>4)</sup> 이에 앞서 隋(581~618)와 당초에 있었던 고구려·백제의 침공도 한두 차례는 등주를 중심으로 산둥반도 일원의 항포에서 직접 황해를 횡단하여 이루어졌던 것 같다.

聖住寺 朗慧和尚의 탑비에 보면 長慶初(憲德王 13~16년, 821~824)에 왕자 金昕이 당으로 사행할 때 당은포에서 황해를 횡단하여 산동의 芝罘山(芝罘)에 도착하고 있다.<sup>5)</sup> 이와 같이 등주 인근의 성산각이나 지부도 이때의 황해 횡단항로의 중요한 항구였음을 알 수 있다.

해류와 풍향을 이용한 항해기술이 발달하면서 황해횡단항로는 많이 이용되었다.<sup>6)</sup> 9세기 중엽의 日本僧 圓仁의 여행기인 《入唐求法巡禮行記》를 보면 산둥반도 登州府 관내의 연안 일원의 많은 항만들이 신라와의 통교에 이용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839년 일본 朝貢使 일행이 신라선 9척을 고용하여 귀국길에 오른 곳도 赤山浦(산동성 榮成市 石島鎮)이며, 847년 원인 자신이 귀국할 때도 이곳 적산포에서 출발하여 황해를 횡단하고 있다.<sup>7)</sup> 이 직항로가 얼마나 쉽게 신라에 도

4) 《舊唐書》권 83, 列傳 33, 蘇定方.

《三國史記》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20년.

5) 〈朗慧和尚白月葆光塔碑〉(《朝鮮金石總覽》권 34).

6) 新羅僧 義湘이 總章 2년(文武王 9년, 669) 상선을 타고 등주에 도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宋高僧傳》권 4, 唐新羅國 義湘傳).

7)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권 2, 開成 4년(839) 7월 21일 및 권 4, 大中 원년(847) 9월 2일.

달할 수 있었던가를 원인의 귀국일자를 더듬어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는 9월 2일 정오경에 적산포를 출발하여 3일 아침에는 벌써 멀리 신라의 산들을 보았고, 4일 해뜰무렵 熊州(公州) 앞바다를 지나 그날밤 高移島(阜衣島)에 정박하였다. 다음날 아침 출발하여 6일에 黃茅島(丘草島·葛草島)의 泥浦에서 정박하고, 거기서 雁島를 거쳐 곧 對馬島에 이르고 있다. 적산포를 출발한지 5일 만에 대마도에 도착한 셈이다. 산동성 牟平縣의 乳山浦도 황해 횡단로의 출항지로 자주 이용되었다.<sup>8)</sup> 그러나 당에서 신라로 항해하는 출발지는 노철산항로이건 황해횡단항로이건 간에 등주가 그 중심임에는 틀림이 없다. 《元和郡縣志》에 보면 신라·백제·渤海로 내왕하는 항포의 중심지는 등주라 명기하고 있다.<sup>9)</sup> 그러기에 登州府에는 新羅館·渤海館이 설치되었고 후일에 가서 신라는 「知後官」까지 파견하였던 것으로 보면,<sup>10)</sup> 등주는 분명 우리 나라와의 내왕에 있어 중요한 항포였음이 틀림없다.

### (3) 남방해로

신라가 통일 이전에 당은포를 이용하여 중국에 이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비단 백제나 고구려의 방해<sup>11)</sup>라는 정치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王都인 경주가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하여 당과의 교통이 매우 불편하였다. 가탐이 《도리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에서 남양만에 이르러 다시 경주까지 가려면 「陸行七百里」라는 노정에다 험준한 추풍령도 넘어야 하는 고통이 따랐다. 적지 않은 「國信物」을 지닌 사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역을 주업으로 하는 상인들도 험한 육로를 통한 수송에는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이와 같은 羅唐 양국간의 교통불편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행로와 수송능력 면에서 월등히 나은 선편이 자연스럽게 이용될 수밖에 없었다. 경주에서 가까운 감포·영일만이나 울산만에서 출발하여 남해안을 지나 흑산도 부근에서 뱃길을 서북쪽으로 돌려 산동반도로 항해하거나<sup>12)</sup> 서남쪽으로 바다를 건

8)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4, 大中 원년(847) 윤3월 10일.

9) 《元和郡縣志》 권 11, 登州.

10) 《冊府元龜》 권 976, 外臣部, 褒異 3, 明宗 天成 2년(927 ; 경애왕 4년) 3월.

11)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권 4., 眞平王 47년 11월 및 권 5, 新羅本紀 5, 善德王 11년.

너 長江口나 남중국으로 직항하는 해로가 이용되었다. 이 강남에 이르는 항로의 중국측 중심 해항은 明州 定海縣, 台州 黃岩縣, 揚州, 泉州, 廣州 등이며 우리 나라측에서는 武州(光州)·羅州·全州·康州(晋州)가 이용되었다. 徐兢의 《宣和奉使高麗圖經》과 《宋史》高麗傳에 나오는 노정이 곧 이 해로에 해당된다. 명주 정해현을 출발하여 梅岑(昌國縣)에서 白水洋(浙江沿岸 海中)·黃水洋(長江口の 濁水바다)·黑水洋(黑潮해역)을 지나 夾界山(小黑山島)·排島(珍島 동쪽바다 섬)·黑山(黑山島)에 도착하여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여 나주·群山·인천·강화도를 지나 禮成江에서 開京에 이르는 항로를 말한다. 서경 일행은 5월 28일에 매잠을 출발하여 3일 뒤인 6월 2일에 「華夷」의 경계라던 협계산에 도착하였고, 3일 오후에는 흑산도에 이르고 있었다. 이와 같이 계절풍을 이용하면 명주에서 불과 5일 만에 흑산도에 도달한다. 《續資治通鑑長編》에도 고려사행로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명주를 출발하여 4일 만에 흑산도에 이르고 있다.<sup>13)</sup> 建炎 2년(고려 仁宗 6년, 1128) 楊應誠 등의 사행길은 5일째 되던 날 명주 정해에 도착하고 있다. 《송사》 고려전에도 명주 정해를 출발하여 순풍을 만나면 5일 만에 흑산도에 이르며, 7일째에는 예성강에 이른다고 했다. 이 항로가 대체로 통일신라 이후 고려초에 이르는 기간동안 많이 이용되었던 이유도 알 만하다.

《南齊書》권 58, 東夷傳에 보면 加羅國王 荷知(鉗知)가 建元 원년(479)에 남제(479~501)로 사신을 보낸 기록이 있다. 金海지방의 나라가 백제(484)에 앞서서 단독으로 남제와 통교하였다는 사실로 보아 황해를 직접 횡단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신라승 覺德이 梁(502~556)으로 건너갔을 때나 또 그가 진흥왕 10년(549)에 양의 사신과 함께 佛舍利를 가지고 왔을 때도 이 남방항로를 이용했음이 분명하다.<sup>14)</sup> 진흥왕 26년에 남조 陳(557~589)의 사신 劉思와 함께 經論 1,700여 권을 가지고 온 「入學僧」 明觀도 필경 이 항로를 따라왔을 것이다.<sup>15)</sup>

12) 《唐國使補》下, 元義方使新羅.

13) 《續資治通鑑長編》권 339, 元豐 6년 9월 경술.

14) 《海東高僧傳》권 2, 覺德.

15)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26년.



신라가 중국 제왕조에 대한 이른바 조공무역을 활발하게 전개한 것이 남조의 진부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의 신라는 남방항로를 보다 많이 활용하였을 것이다. 진과의 교역은 진흥왕대만 해도 전후 4차나 되었으며眞智王(576~578)·진평왕(579~631)대에 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였다. 진평왕 7년(585)의 고승 智明의 入陳이나 9년의 大世와 仇柒의 이야기<sup>16)</sup>도 남방해로로 남중국의 吳·越에 이르렀던 당시 신라사람들의 정황을 반증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밖에도 圓光法師가 선편으로 金陵(南京)에 직향한 기록은<sup>17)</sup> 신라가 통일 이전에 이미 남방항로를 통하여 남조와 왕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통일 이후에도 이 백길이 활발히 이용되었던 것은 물론이다. 그것은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에서 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安史의 난(755~763) 이후 江南지역의 경제성장과 揚州를 비롯한 남중국의 廣州·福州·杭州·明州·泉州 등 제항구가 국제항으로 크게 번창한 까닭이기도 하다. 중세기의 이슬람·아라비아 상인들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거쳐 남중국과 양주까지 무역시장을 개척하고 서방의 문물을 다량으로 가지고 온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여파는 당과 정치·경제·문화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신라에 미쳤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지역에 쏠릴 수밖에 없었다. 憲德王 8년(816) 흥년이 들자 신라인 170명이 당의 浙東(남중국 절강 동쪽)에 건너가 먹을 것을 구하였던 사실<sup>18)</sup>은 이의 반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남방항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唐會要》에는 望海鎮(명주 정해현)이 일찍부터 신라 원항선박의 중요한 발착항구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sup>19)</sup> 뿐만 아니라 《輿地紀勝》에는 명주 창국현의 梅岑山은 고려·신라·발해·일본 등의 선박이 바람을 기다리던 곳이라 하고 있다.<sup>20)</sup> 그리고 《續日本後紀》에 보면 신라상인들이 康州(廣州)에

16)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진평왕 7년·9년.

17) 《續高僧傳》 권 13, 釋圓光.

18) 《三國史記》 권 10, 新羅本紀 10, 헌덕왕 8년.

19) 《唐會要》 권 78, 諸使雜錄 上 元和 14년(819).

20) 《輿地紀勝》 권 11, 兩浙東路 慶元府 明州 景物 下.

표류한 일본인 50여 명을 일본으로 데리고 왔다는 기록이 있다.<sup>21)</sup> 신라인들이 남방항로를 따라 중국에 진출하였던 좋은 예라 하겠다.

신라말에 오면 이 남방항로는 더 많이 이용된다. 그것은 북중국에 契丹족이 등장한 데에도 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이 항로를 이용하는 선원들은 이미 계절풍과 해조의 흐름을 잘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많은 신라승의 入唐과 귀국의 기록을 보면 서북풍이 부는 10월~2월에 중국으로 출발하여 서남풍이 부는 3월~8월에 귀국하고 있다. 여주 高達寺 元宗大師도 眞聖王 6년(892) 늦겨울에 상선으로 남중국의 舒州 桐城縣(安徽省 桐城縣)에 도착하였고 景明王 5년(921) 7월에 강주(진주) 德安浦를 거쳐 귀국했다.<sup>22)</sup> 항해기간도 놀라울 정도로 단축되었다. 앞서 본 《고려도경》이나 《송사》 고려전의 기록처럼 5~6일이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眞澈大師(利儼, 866~932)의 탑비에는 그가 진성왕 10년(896) 入浙使 崔藝熙와 함께 ‘不銷數日’에 鄞江(寧波)에 도착하였고 孝恭王 15년(911)년에 나주 會津으로 환국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sup>23)</sup> 계절풍을 잘 이용한 항해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聞慶 鳳巖寺의 靜眞大師도 효공왕 4년(900)에 상선을 타고 江淮부근에 도착하였고 景明王 8년(924) 7월에 전주 旃安縣 포구로 귀환하였다.<sup>24)</sup> 光陽 天龍寺 洞眞大師는 眞聖王 6년(892) 늦겨울에 출항하여 경명왕 5년 여름철(7월)에 전주 臨海郡에 귀착하였다.<sup>25)</sup>

五龍寺의 法鏡大師는 효공왕 12년 7월에, 砥平 菩提寺의 大鏡大師는 같은 왕 13년 7월에 武州(광주)의 會津과 昇平에 귀환하고 있다. 많은 승려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늦겨울에 중국으로 가서 여름철(7월)에 무주·전주·강주나 나주 방면으로 돌아오고 있다. 물론 계절풍과 관계있는 결과이다. 後百濟王 甄萱과 吳越 등 제국과의 빈번한 왕래는 이 항로의 지속적인 이용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예라 하겠다.<sup>26)</sup>

21) 《續日本後紀》권 15, 承和 12년(845) 12월 5일.

22) 《朝鮮金石總覽》上

23) 《朝鮮金石總覽》上.

《海東金石苑》권 3.

24) 《朝鮮金石總覽》上.

《海東金石苑》권 4.

25) 위와 같음.

26) 金庠基, 〈羅末地方群雄의 對中交通 一특히 王逢規를 중심으로-〉(《東方史論叢》,

## (4) 선박과 항해술

항해술은 조선술의 발전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신라시대의 조선기술을 알 수 있는 기록은 거의 없다. 《三國史記》 등에는 해사에 관한 기록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의 船形이나 구조 등에 관한 기록은 없다. 다만 후대의 《高麗史》·《高麗史節要》·《冊府元龜》·《高麗圖經》 등에 선박의 규모·형체에 관한 기록이 있어 그 시대의 중국·일본 등의 사료와 함께 검토하여 신라시대의 배모양을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신라는 일찍부터 일본과의 해상교류가 이루어졌던 사실로 미루어 보면 선박제조기술도 제법 발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三國史記》智證王 6년(505)조에 이미 선박의 이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sup>27)</sup> 그 뒤 진흥왕·진지왕 때에 중국과의 교역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항해업무도 강화되었다. 그것은 진평왕 5년(583) 정월에 비로소 船府署를 두어 大監(장관)과 弟監(차관) 각 한 사람을 두고 항해업무의 개혁을 기도한 것으로도 알 수 있다.<sup>28)</sup> 그러나 신라가 해양 제반사를 강화한 것은 통일 이후의 일이다.文武王 18년(678), 이제까지 兵府에 예속되어 있던 선부서를 독립시켜 별도로 船府를 설치하고 船府令 한 사람을 두어 선박업무를 관장하게 하였다.<sup>29)</sup> 뒤이어 神文王 8년(686) 2월에 船府卿 한 사람을 더 두게 하였다. 이러한 일단의 조치는 분명 신라의 해상활동 및 대외무역과도 관련이 있었던 것이라 믿어진다.

신라시대의 배 모양이 어떠했는지는 아직까지 알 길이 없다. 청동기시대의 암각화로 알려져 있는 盤龜臺(경남 울주군) 암벽화에는 당시 바다사람들의 생활모습을 음각해 놓고 있다. 그 암벽화에는 ‘외양선’ 모양의 배 그림이 보인다.<sup>30)</sup> 반구대는 太和江 상류에 위치하여 배로 동해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이다. 삼국시대의 신라·가야에서 각대가 달린 배 모양의 토기가 수점 출토되었다. 경주 金鈴塚, 경북 달성군 현풍 등지에서 출토된 배 모양의 토기가 곧

서울大 出版部, 1984), 434쪽.

27)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지증왕 6년.

28)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진평왕 5년 정월.

29) 《三國史記》권 7, 新羅本紀 7, 문무왕 18년 정월.

30) 김원룡, <울주 반구대 암각화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 9, 1980) 7쪽.

그것이다. 이것들은 거의 5~6세기의 것이며 출토지역도 신라·가야에 한정된 것이다. 1976년 경주 雁鴨池에서 발굴된 통나무배(刳船)로서도 신라 선체의 구조를 알기에는 미흡하다.<sup>31)</sup> 1984년 봄에 莞島 漁頭里 해저에서 발견된 古船體는 신라 선박의 모양을 추정하는 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던져준다.<sup>32)</sup> 인양된 선체는 11세기 고려초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近海沿岸 왕래에 적합한 전통적 「韓船구조방식」인 平底구조 너비선이다.<sup>33)</sup>

일반적으로 중국을 비롯하여 동양 古代船의 모양은 方頭·方艚·平底였는데 의견을 같이한다. 1960년 3월 唐代的 揚州 揚子縣(지금 邗江縣 施家橋)에서 대형 平底木船(길이 24m, 너비 4.3m, 깊이 1.4m)과 배 바닥이 둥글고 좁은 圓底木船(길이 13.65m, 너비 0.75m, 깊이 0.56m)이 발굴되었다.<sup>34)</sup> 큰 배는 장부를 맞추고 못을 박는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졌고 이미 침몰방지의 성능이 강한 방수선실 기술이 시공되어 있었다. 1973년 6월 당대의 양주 海陵縣 如皋鎮 掘港(江蘇省 如皋鎮 馬港) 부근에서 인양된 당초의 목선(길이 17.32m, 너비 2.58m, 깊이 1.6m)도 방두·방소·평저형으로 전자와 동일한 기술로 조선되었다.<sup>35)</sup> 여고진 마항은 당대 양주 대운하에서 바다로 나아가는 또는 바다에서 登陸하는 지점이다. 신라사절이나 일본 조공사 선박이 기착하는 곳이기도 하다.<sup>36)</sup> 이 목선은 9개의 칸막이(水密隔壁)와 하나의 돛, 그리고 철못으로 건조된 매우 견고한 목선이다. 상당히 발달된 근해안 교역선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대에 이미 평저선보다 遠洋航海에 더 편리한 底圓面高船(배 밑이 둥글고 甲板이 높은)도 건조되었다는 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 고대의 木帆船은 대체로 4개의 선형이 있다. 즉 沙船·福船·廣船·烏船을 가리킨다. 사선은 주로 강소 이북에서 많이 이용되었고 복선은 福建, 광선은 廣東, 오선은 절강 등 양자강 이남 지방에서 이용된 선형이다. 중국의 전형적 선형인

31) 《雁鴨池發掘調查報告書》(文化財管理局, 1978), 258쪽.

32) 《莞島海底遺物》(文化財管理局, 1985), 109쪽.

33) 金在瑾, 〈張保臯時代の 무역선과 그 航路〉(《張保臯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1985), 147쪽.

34) 〈揚州施橋發見了古代木船〉(《文物》, 강소성문물공작대, 1961-6), 52쪽.

35) 〈如皋發現的唐代木船〉(《文物》, 南京博物院, 1974-5), 84쪽.

36)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권 1, 開成 3년(838).

사선은 평저형 선박으로 주로 대운하를 통한 조운 등에 많이 쓰였다. 복선·광선은 龍骨(bar keel)을 가진 圓(尖)底船型(round bottom)으로 물이 깊고 섬과 암초들이 많은 남쪽에서 많이 이용되었다. 사선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지만 복선·광선이 언제부터 건조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시가교 고선의 예나 謝占壬이 《日知錄》을 평주하는 글에서 “북건과 광동의 航洋船은 船底가 둥글다”라고 한 것<sup>37)</sup> 등으로 미루어 보아 당대에는 이미 원(침)저선이 출현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선은 중국 고대의 전형적인 선형으로 비단 강소 이북의 해양에서 뿐만 아니라 북건·광동 등 남양해역에서도 이용되었다. 중소형의 화물선·어선 등으로도 많이 쓰였고 또 주변국가에도 널리 전파되었다.<sup>38)</sup> 신라선이나 莞島船도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淸海鎭이 설치된 시기(828)에는 신라에도 원양항해에 적합한 원저선이 이용되었으리라는 짐작이 간다. 신라선단이 나·당·일 삼국을 종횡무진 왕래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대의 선박이 그 구조방식이나 크기·帆裝 및 舵 등에 있어서도 같은 시대의 西洋船들보다 훨씬 앞섰던 것으로 보아<sup>39)</sup> 백제·신라의 조선기술도 높은 수준이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고대 일본이 조선기술을 신라나 백제로부터 터득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면 수궁이 간다. 바로 고대 일본의 「猪名船」은 신라 기술자들에 의해 건조되었고 孝德朝 安藝國에서 만든 대형선도 「百濟船」이라 부르고 있다.<sup>40)</sup> 9세기에 이르러서도 九州 大宰府(다자이후)에서 「新羅船」을 건조하고 그의 우수성을 격찬하고 있다.<sup>41)</sup> 이는 곧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때까지 백제·신라의 조선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이런 까닭으로 일본은 「신라선」의 形制法式을 실물로 전승하게 하였다.<sup>42)</sup>

일본정부가 당에 사신·학문승 등을 파견할 때 이용한 선박 가운데에는 많은 신라선이 포함되어 있었고 선원들까지도 신라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

37) J. Needham,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Vol. 4, 1971, p.429.

38) 金在璫, 〈中世의 船舶에 대하여〉(《文化財》14, 文化財管理局, 1981), 120쪽.

39) 金在璫, 위의 글, 130쪽.

40) 《日本書紀》권 10, 應神 31년(300) 및 권 25, 孝德 원년(645).

41) 《續日本後紀》권 8, 仁明朝 承和 6년(839), 丙申.

42) 《類聚三代格》, 承和 7년(840), 9월 23일.

하고 있었다.<sup>43)</sup> 한 예로 문성왕 원년(仁明朝 승화 6년, 839) 일본의 조공사 일행은 楚州(淮安) 新羅坊에서 신라선박 9척과 바다길에 익숙한 신라선원 60여 명을 고용하여 귀국하였다.<sup>44)</sup> 학문승 仁好·順昌 등 26명이 귀국할 때 탑승한 선박도 신라인 張公靖의 배였다.<sup>45)</sup> 天台宗의 請益僧 원인도 그의 제자 性海·惟正 등과 함께 신라상선으로 九州의 鎮西府로 돌아왔다.<sup>46)</sup>

통일신라시대의 항해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여겨진다. 원양항해에 있어서도 일본이나 중국 남조와의 오랜 교역경험을 통하여 조류(물시)·바람·해류 등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였다. 특히 간만의 차가 심한 우리 나라 남해안·서해안의 해운에 있어서는 조류도나 해류도가 없었던 시절, 범선들은 밀물과 썰물의 현상을 잘 알아야 험한 해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오랜 경험없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8세기 중엽에는 당나라 절강인 寶叔蒙이 《海濤志》(당 大歷 5년, 惠恭王 6년, 770)를 저술하고, 盧肇의 《海潮賦》(당 大中 4년, 문성왕 12년, 850)과 邱光庭의 《海潮論》(당 光化 3년, 효공왕 4년, 900) 등이 뒤를 이어 출간되었다. 비록 중국의 연해안에서 일어나는 밀물·썰물에 관한 연구서이기는 하지만, 당시 중국과의 교역이 빈번하던 우리 나라 선원들에게는 많은 길잡이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 배의 키(舵)는 동양 고유의 船尾懸垂舵(slung-type axial vertical rudder)형식으로 되어 있어 서양 배의 側舵(side rudder)양식에 비하여 배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 월등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하의 조정이 자유로워 우리 나라 연안항해에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sup>47)</sup>

계절풍과 풍력을 이용한 항해도 통일신라시대에는 크게 발전한다. 옛날 선원들은 연해안을 항해할 때는 주로 조류를 타고, 원양을 항해할 때는 계절에 따라 바람을 이용하였다. 서해에서는 겨울철(12월~2월) 바람은 북서 및 북풍이 주류를 이루며 봄철(3월~5월)이 되면 점차 남풍으로 바뀐다. 여름철(6월~8월)은 봄철과 비슷하며 서남풍이 분다. 가을철(9월~11월)은 남풍이 다시

43) 《日本書紀》권 26, 齊明 4년 7월·권 30, 持統 4년 10월.

44)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권 1, 開成 4년(839) 3월 17일.

45) 《續日本後紀》권 13, 승화 10년(843) 12월 癸亥.

46) 《續日本後紀》권 18, 승화 15년(848) 3월 乙亥.

47) 金在瑾, 앞의 책, 127쪽.

북서풍으로 바뀌는 계절이다. 그러므로 신라에서 당으로 출발하는 시기는 가을철이 가장 적당하며, 당에서 신라로 돌아오는 시기는 늦은 봄에서 여름철이 가장 적당하다. 법흥왕 이후 중국 남조와의 교역이나 많은 학문승들의 당나들이도 이와 같은 계절풍을 잘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9세기 이후가 되면 항해술의 발달로 역풍을 이용한 항해도 많아졌다. 開成 4년(839) 일본 조공사 일행을 실은 신라선 9척은 산동반도 적산포에서 신라로 직항하였고, 그것도 7월에 출발한 것을 보면 이들의 항해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이 입증된다.<sup>48)</sup> 그 당시에는 이미 순풍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橫風·역풍이 불 때에도 능히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고 單돛뿐만 아니라 多돛도 있었음이 분명하다.

帆船은 서양선을 기준으로 하면 橫帆과 縱帆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횡범은 四角帆으로서 그 기원은 아주 오래다. 이는 바람을 잘 받는 장점이 있는 대신, 帆布의 한 면만 쓰고 양면을 번갈아 쓸 수 없는 까닭으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逆走性能이 좋지 않다. 이에 반하여 종범은 그 한 邊이 帆柱에 매여져 있기 때문에 돛의 양면이 모두 바람을 받을 수 있고, 따라서 역주성능이 아주 좋다. 범선이 거의 자취를 감춘 오늘날에도 요트에 종범만이 쓰여지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 역풍을 뚫고 항진하는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동양식 돛은 종범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 구조와 작용이 아주 독특하다. 돛의 양면으로도 바람을 받을 수 있어 역주성능이 우수하고 조작이 용이하다.<sup>49)</sup> 장보고의 선단이 아무 때나 바다를 가로지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기술을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학자들은 실용적인 航海圖도 唐代에는 이미 나왔다고 본다. 《中國航海史》에는 가탐의 〈海內華夷圖〉를 근거로 〈唐代北方遠洋航線圖〉를 재현하고 있다.<sup>50)</sup> 높은 산과 항포를 그려놓은 항해도가 실제로 이용되었으리라는 짐작은 간다. 원인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보면 신라선원들이 실제로 海州의 東海山, 密州의 大珠山, 赤山浦의 赤山을 항해에 둘도 없는 표적으로 삼

48)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1, 開成 4년(839) 7월 23일.

49) 金在瑾, 앞의 책, 127쪽.

50) 中國航海學會 편, 《中國航海史》(人民交通出版社, 1988), 135쪽.

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 「承和朝貢使船」를 안내한 신라인 譯官 金正南도 山은 물론이거니와 淺綠빛 바다를 보고 정확히 배의 위치를 알았다.<sup>51)</sup>

8세기 이래 동서를 막론하고 牽星術이 항해에 널리 이용된다. 중국에서는 기원전 2세기에 이미 견성술을 이용하여 항해를 한 흔적이 많다.<sup>52)</sup> 《漢書》藝文志에는 《海中星占驗》·《海中二十八宿國分》 등 항해에 관한 전문서적만도 130여 권이나 수록되어 있다. 唐代에 오면 天文으로 항해를 유도하는 방법이 더욱 발달하였고, 그 증거들이 《隋書》經籍志나 《新唐書》예문지에 많이 발견된다. 신라에도 고승 道證이 당으로부터 천문도를 가지고 온 일이 나<sup>53)</sup> 《삼국사기》職官志에 天文博士·司天博士 등 천문을 관장한 전문인이 나타나며,<sup>54)</sup> 천문학자나 첨성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천문에 관한 연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여겨진다. 항해와 관계된 천문서가 있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신라선원들은 앞서 지정한 바와 같이 일찍부터 계절풍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장보고 시대(828~841)에 오면 견성술에 의한 항해에도 숙달된 듯하다.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항해중 정확한 방향, 예컨대 巽(東南)·坤(西北)·艮(東北) 등을 찾아 항진한 흔적이 군데군데 보인다. 일본에서는 平安朝(794~1185) 이래 「遣唐朝貢船」은 약속이나 한듯이 음력 7월에 九州 博多를 출발하고 있다. 태풍의 계절이고 보면 해난이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다. 2번이나 풍랑을 만나 도해를 시도한지 2년 뒤에야 겨우 성공한 「承和朝貢船」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2) 해외무역

奈勿王 시대(356~401)는 신라정치사에서 뿐만 아니라 무역사에 있어서도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시대이다. 신라가 비록 고구려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

51)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1, 承和 5년(開成 3년, 838), 6월 28일.

52) J. Needham, *Science and civilization in China*, Vol. 4, Part 3, Navigation, 1971.

53) 《三國史記》 권 8, 新羅本紀 8, 孝昭王 원년 8월.

54) 《三國史記》 권 39, 雜志 8.



지만 두 차례(내물왕 22년·26년, 377·381)나 前秦에 사신을 보내어 이른바 조공의 형식을 통한 官貿易의 길을 열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전진의 멸망(394)과 중국대륙의 혼란, 그리고 고구려와의 관계 악화로 더 이상 북중국 諸國과의 교역은 계속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법흥왕 8년(梁 普通 2년, 521) 이번에는 백제사신을 따라 남조의 梁(502~556)에 入貢하였다. 이 일은 그 후의 중국대륙과의 무역확대에 있어서 획기적 계기가 되었다.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었던 신라는 중국대륙과 끊임없이 접촉할 수 있었던 고구려나 백제에 비하여 발전과정도 완만하였다. 이제 신라는 남조의 중심국이던 梁과 직접 교류함으로써 동아시아 세계의 문화·경제의 큰 흐름속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당시 양으로부터 의복과 향을 받은 신라조정이 그 이름과 그것의 쓰임을 알지 못하여 향을 가지고 국내를 돌아다녔던 일<sup>55)</sup>을 미루어 생각하면 후진국 신라에 던져진 문화충격이 어떠하였던가를 알 만하다. 신라가 중국대륙과의 무역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된 것은 陳(557~589)과의 교역에서이다. 진흥왕 28년(567)부터 시작된 이 교역<sup>56)</sup>은 진흥왕대만 해도 전후 4차례에 이르며, 진지왕 3년(578)에도 方物を 바쳐 교역하고 있다.<sup>57)</sup>

그런데 진평왕대(579~631)에는 조공형식의 공무역만이 아니라 상인들에 의한 상거래도 행해지고 있었던 흔적이 곳곳에 나타난다. 고승 智明과 圓光法師의 入陳은 비록 불법을 구하러 간 승려에 관한 기사이지만 선박의 왕래가 빈번하였다는 반증이며 특히 남해안에서 배를 타고 남중국으로 들어간 大世와 仇柒의 이야기는 그 당시 민간인들의 중국 내왕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이 당시 중국과 교역된 무역품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중국에서 보내온 回賜品目도 현존사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진 멸망 이후 더욱 빈번하게 교번하였던(7회) 隋(581~617)와의 교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른바 조공무역이 전성기를 이루었던 당대(618~907)에도 國

55)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15년.

56)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28년 3월.

57)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진지왕 3년 7월.

使의 왕래는 매우 빈번하였지만 貢物·회사품의 품목을 전해주는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다. 당이 건국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까지 반세기간, 양국의 교빈은 기록상 34회나 되지만<sup>58)</sup> 교역품목을 명기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다만 이 시기 왕이 승하하거나 왕족이 사망하였을 때 부의로 보낸 물품이나 답례품이 이때의 주요한 교역품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될 뿐이다. 진평왕이 승하하였을 때(632) 당 太宗은 비단 200필을 보내어 부의하였고<sup>59)</sup> 伊瀋 文王(文武王 3弟)이 죽었을 때(665) 당 高宗은 紫衣·腰帶를 비롯하여 彩綾羅 100필, 生絹 200필을 부의하였다. 신라는 답례로 金帛을 더욱 두터이 보냈다.<sup>60)</sup> 당초부터 이 기간 동안 신라는 금·비단 등 원료적인 토산품을 진공하였고, 당은 羅·綾·綵·錦 등 고급직물과 의복·금은세공품을 보내왔다.

신라의 삼국통일은 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무역량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신라의 경제생활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통일전에는 그 수출품이 원료적 토산품인데 반하여 통일 이후에는 朝霞紬·魚牙紬·鏤鷹鈴 등의 고급직물과 금은세공품 등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sup>61)</sup> 聖德王 22년(당 玄宗 11년, 723) 당에 進貢된 물품은 ‘果下馬一匹·半黃·人蔘·美鬣·朝霞紬·魚牙紬·鏤鷹鈴·海豹皮·金銀’ 등 주로 고급기술품이 포함되어 있다.<sup>62)</sup> 당은 그 답례품으로 ‘金袍·金帶·綵絹·素絹 共二千匹’을 보내왔다.<sup>63)</sup>

신라 수출품의 이와 같은 질적 변화는 성덕왕·경덕왕대를 중심으로 공예품 생산과 관계된 직관의 변혁에서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 보면 ‘陵色典 大舍一人 史一人’, ‘朝霞房 母二十三人’, ‘染宮 母十一人’ 등 20여에 이르는 직관이 명기되어 있다.<sup>64)</sup> 고급물품의 생산을 위한 관영공장의 설립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같이 세분화되고 분업화된 신라의 관영공장이 수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은 아니다. 신라 전성기의 ‘京中十七萬八千九百三十

58) 申滢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一潮閣, 1984), 315쪽.

59)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진평왕 54년 정월.

60) 《三國史記》 권 6, 新羅本紀 6, 문무왕 5년 2월.

61) 申滢植, 앞의 책, 336쪽.

62) 《三國史記》 권 8, 新羅本紀 8, 성덕왕 22년.

63) 《三國史記》 권 8, 新羅本紀 8, 성덕왕 23년 2월.

64) 《三國史記》 권 39, 雜志 8 職官 中.

六戶'와 '三十五金入宅'으로 상징되는 부유귀족층<sup>65)</sup>의 물품수요 증대에 따른 공장설립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영공장의 건설이 당과의 조공형식의 무역을 위한 것이었는지 혹은 부유귀족층의 물품수요의 충당을 위한 것이었는지 간에 관공장의 고급기술은 널리 보급되고, 그것은 다시 민영의 가내공장 설립으로 발전되어 간 것만은 분명하다.

성덕왕 29년(730) 2월부터 전후 4회에 걸쳐 교역된 무역품이나 景德王 7년(748) 3월과 惠恭王 9년(773) 4월에 送貢된 교역품들은 모두 그 질과 양에 있어서도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sup>66)</sup> 특히 景文王 5년(865)에 당 懿宗(860~873)이 보내온 물품과 경문왕 9년 신라가 당에 수출한 물품들은 그 당시 관무역의 내용과 크게 발달한 신라 금속공예산업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sup>67)</sup> 《삼국사기》를 비록하여 《冊府元龜》·《당회요》 등에 보이는 자료를 바탕으로 나당 양국 간에 교역된 물품을 간추려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 수출품

신라가 당으로 수출한 물품은 금속공예품·금·은·동·銅製品·織物工藝品·직물·藥材·香油·美鬚·馬·狗·鷹·海獸皮·毛皮·皮革·牛黃·人蔘 등을 들 수 있겠다. 매우 다양한 품목들이다. 이 가운데 금·은·금속공예품 등 귀중품은 대부분이 관영공장에서 제작된 최고급품에는 틀림없겠지만, 앞서 논급한 바와 같이 관영공장의 고급기술은 이미 민간공장에 널리 보급되고 있었다. 哀莊王은 “錦繡로 佛事を 하거나 금은용기로 하는 일”을 금하고 있다.<sup>68)</sup> 신라인들의 생활양상 변화와 물품수요의 증대를 말해주는 한 예이다. 이미 금은이나 그것으로 장식한 귀중품도 사찰이나 지방호족간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며, 장보고 때에 오면 민간무역품으로도 교역되었다. 日僧 원인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보면 그가 당에 머무는 동안 도움을 받은 사

65) 《三國遺事》 권 1, 紀異 2, 辰韓.

66) 《三國史記》 권 8 新羅本紀 8, 성덕왕 29년.

《唐會要》 권 95, 신라

《三國史記》 권 9, 新羅本紀 9, 혜공왕 9년.

67) 《三國史記》 권 11, 新羅本紀 11, 경문왕 9년.

68) 《三國史記》 권 11, 新羅本紀 11, 애장왕 7년 3월.

람들에게 사은품으로 고급 「新羅刀子」를 주고 있다.<sup>69)</sup> 이는 그 「신라도자」가 민간교역품으로 선용되고 있었다는 좋은 증거이다. 하기가 「신라도자」는 이미 7세기에 일본에 수출되어 인기품으로 등장하고 있다.<sup>70)</sup>

## (2) 수입품

신라가 당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곧 공헌품에 대한 회사품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공헌품의 그것보다 더욱 희소하다.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그것을 간추려보면, 여러 가지 工藝品・絹織物・茶・書畫・瓷器・漆器 및 「南海舶來品」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예품 가운데는 金銀細器物・金帶銀帶・羅繡袍・緋襪袍 등의 물품명이 산견된다. 성덕왕이 정교한 이 제품들을 격찬한 것으로 보면 빼어난 당나라 기술이 신라에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sup>71)</sup> 견직물은 종류의 다양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양의 많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錦袍・綵綾・帛・紫羅繡袍・瑞紋錦・五色羅綵・羅錦綾綵 등이 수십 필단에서 2,500필까지 이르니 결코 적은 양은 아니다. 헌공・회사가 관무역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이다.

「남해박래품」 중에서 우선 당을 통하여 수입된 물품만을 보면, 성덕왕 32년(733) 12월의 회사품 가운데 鸚鵡 한 쌍이 있다.<sup>72)</sup> 이 밖에 《삼국사기》 권 33, 雜志 2의 色服 車騎 器用 屋舍조에 보이는 玳瑁・紫檀・沈香・孔雀尾・瑟瑟・毳毼・翡翠毛 등의 「남해박래품」은 신라무역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私무역과 연관지어 뒤에서 상론하겠다.

## (3) 일본과의 교역

문헌사료를 통해서 보는 한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교역은 鐵과 곡물로 시작된 것 같다. 《三國志》에는 경상도 지방에서 산출되는 ‘弁辰의 鐵’이 일본으로 수출된 기록이 실려 있다.<sup>73)</sup> 경주・蔚山・安東・盈德・草溪・山陰 등지에

69)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4, 會昌 5년(845) 7월 5일.

70) 《日本書紀》 권 29, 天武 8년 10월(680).

71) 《三國史記》 권 8, 新羅本紀 8, 성덕왕 32년.

72) 위와 같음.

73) 《三國志》 권 30, 魏書 30, 東夷 弁辰.

서 생산된 철이 金海와 울산을 통하여 일본으로 반출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의 《古事記》에 보이는 「韓鍛」과 《속일본기》에 나오는 「韓鐵師」·「韓鍛冶」 등의 기록에 의해 입증된다.<sup>74)</sup> 《삼국사기》에 “倭人이 크게 굽주려 찾아와 먹을 것을 구하는 무리가 천여 인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sup>75)</sup> 역사적 사실로 믿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해도 곡식의 수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는 기록이라 생각된다.

신라는 통일 이후 일본과의 교역을 매우 활발히 전개해 간 것 같다. 《일본서기》天武·持統記에 보면 신라로부터 수입된 물품명이 기록되어 있다. 天武朝는 금·은·철·刀·鼎·錦·絹·布·皮·馬·狗·驪·駱駝<sup>76)</sup>와 細馬一匹·驪一頭·犬二狗·鍍金器·金·銀·霞錦·綾羅·虎豹皮·藥物類·屏風·金器·鞍皮·絹布<sup>77)</sup>을 수입하였고 다음의 持統朝에는 이 밖에 많은 佛像과 ‘種種彩絹’, 그리고 ‘種種珍異物’<sup>78)</sup>을 수입하고 있다. 여기에서 신라의 수출품 중 값비싼 금속·직물공예품은 차치하더라도 신라가 西方·南方에서 수입한 ‘駱駝’나 ‘중종진이물’을 다시 재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종래 일본에서는 西方文物의 거래가 다 중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것으로만 생각해 왔지만 신라를 통한 전래도 많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서방문물이 신라를 통하여 일본으로 전래되었다는 사실은 일본 奈良의 正倉院에 수장되어 있는 신라물품 교역에 관한 26여 종의 文件과 關市令(養老年間)의 蕃客·官司·禁物 각 조에 명백히 드러나 있다. 정창원의 〈買新羅物解〉에는 唐 南海(동남아시아·인도·아랍·페르시아) 등의 물산이 허다하게 포함되어 있다.<sup>79)</sup> 《속일본기》권 18, 孝謙朝 天平勝寶 4년(경덕왕 11년, 752) 윤 3월 조에 신라왕자 金泰廉 이하 700여 명의 대사절단이 來訪하여 6월부터 平城京

74) 《古事記》中.

《續日本紀》권 9, 元正記 養老 6년(722) 3월 10일·권 29, 稱徳記, 神護景雲 2년(768) 2월 28일.

75) 《三國史記》권 2, 新羅本紀 2, 伐休尼師今 10년 6월.

76) 《日本書紀》권 29, 天武 8년 10월(680).

77) 《日本書紀》권 29, 朱鳥 원년(686) 4월.

78) 《日本書紀》권 30, 持統 2년(688) 2월·3년 4월.

79) 東野治之, 〈鳥毛立女屏風下貼文書の研究〉(《正倉院文書と木簡の研究》, 塙書房, 1977), 331~341쪽.

에서 대대적인 교역활동을 한 소식을 전한다. 이 〈매신라물해〉는 이때 신라로부터 가지고 온 박래품을 官人귀족들이 구매하기에 앞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의 품목·가격·수량 등을 기록하여 大藏省·內藏寮에 제출한 구입허가 신청서이다.

교역품은 주로 금속품·기물·향료·약물·염료 등이 주를 이룬다. 향료에는 薰陸香·靑木香·丁香·藿香·零陸香·甘松香·龍腦香 등 남중국·동남아시아·인도·아라비아산이 매우 많다. 약재에도 呵藜勒·畢拔 등 동남아시아·페르시아산이 보인다. 이 밖에 日常器物로는 新羅墨·종이·악기·毛氈·松子·密汁·口脂·經卷·佛具·鏡·碗·盤箸(佐波理加盤) 등 다양한 물품이 엿보인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일은 김태립 일행 가운데는 일본에서의 교역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신라물’ 가운데는 ‘念物’이라고 표기된 상품들이 있어 당시 일본의 귀족들이 꼭 사야 할 신라상품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염물’의 가격은 비싸서 거울·丁香의 경우는 ‘면 200톤’이나 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라 수출품 중에는 중국·서역·동남아시아·인도·페르시아 등지에서 생산된 물품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 사실은 당시 신라가 중개무역이건 직접무역이건 간에 활발한 무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당시의 일본무역은 엄하게 국가가 관리하는 공무역이 주류를 이루었다. 《속일본기》에는 入關된 신라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左·右大臣을 비롯하여 大官·왕녀들에게 구매대금조로 大宰府의 綿 7만여 톤을 하사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일본 대외무역의 한 면을 설명해 주는 한 예라 하겠다.<sup>80)</sup>

신라·일본간의 국교는 宣德王 원년(780)에 두절되었다. 그러다가 애장왕 4년(803) 다시 교빈이 시작되고<sup>81)</sup> 이듬해 일본은 ‘黃金 三百兩’을 貢送하였다.<sup>82)</sup> 이는 憲康王 8년(882) ‘황금 삼백량’과 ‘明珠 十個’를 보내온 기록과 더불어 일본의 수출품목을 전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양국의 공식 교빈

80) 《續日本紀》권 29, 神護景雲 2년(768) 10월.

81) 《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애장왕 4년.

82) 《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애장왕 5년.

이 단절된 뒤에도 신라상인들의 내왕은 빈번하였다. 일본은 당과의 교통이나 교역상의 정보를 이 신라 국제무역상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日本後紀》嵯峨紀(810~823, 憲德王時)에는 신라상인들이 자주 長門과 筑前(지쿠젠)에 來航하였고 船舶 20여 척이 對馬島를 드나들어 海賊船으로 오인받기도 하였으며, 일본도 대마도에 「新羅譯語」를 두었던 사실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는 곧 신라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하였다는 방증이다.<sup>83)</sup> 그러나 신라상인들의 대일본 사무역이 본격화된 시기는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828) 이후가 아닌가 짐작된다.

《續日本後紀》에 보면 大宰府가 중앙정부에 올린 글 가운데 “蕃外の 신라국 신하인 장보고가 사신을 보내어 방물을 올렸다”라고 한 내용이 있다.<sup>84)</sup> 장보고는 당시 국가간의 무역만이 허용된 관행을 무시하고 신라정부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사신을 보내어 통교하고 있었다. 물론 대재부는 “人臣은 국가 간의 교역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장보고선단을 그들의 거점인 흥려관 인근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대재부예다 장보고의 「廻易使」들이 가지고 온 「唐國貨物」을 민간인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매매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선단이 가지고 온 물품이 값비싼 것이어서 구매자 가운데는 왕왕 가산을 탕진하는 경우가 있었던 듯 이를 경계하는 조치도 취하도록 하고 있다.

장보고의 교역은 귀족은 물론 筑前(지쿠젠)의 國守와도 직접 상거래를 할 만큼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承和 9년(842) 정월 장보고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 축전의 국수 文室宮田麻呂가 지난해 장보고의 회역사 李忠・楊圓 등이 가지고 온 교역품을 압수한 사건이 일어났다. 文室은 “장보고가 살아 있을 때 ‘당국화물’을 구매하기 위하여 비단(紬)을 대금조로 선불했는데 갑자기 장보고가 죽었다고 하니 약속한 화물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회역사들이 가지고 온 상품을 차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장보고선단에 찍 동정적이어서 문실이 회역사의 상품을 탈취한 행위

83) 金庠基, 〈古代의 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여〉(《震檀學報》1, 1934), 100쪽.

84) 《續日本後紀》권 9, 承和 7년(840) 12월 27일.

를 막지 못한 대재부 관리들을 질책한 뒤 화물을 되돌려 주게 하였다.<sup>85)</sup>

이와 같이 장보고의 대일본 교역은 대재부의 관리들은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이 지대하였다. 그러기에 장보고 사후에도 공식적인 교역은 거부되더라도 민간교역은 여전히 허용되고 있었다. 《속일본후기》에 보면 太宰大貳藤原衛의 상주문 4조가 실려 있다.<sup>86)</sup> 그 가운데의 하나가 신라 민간인의 입국과 상인들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민간인들의 입경은 국정염탐이라는 구실로 엄하게 금하고 있는 반면, 상인들의 거래행위는 허용하여 가지고 온 물산을 민간에서 교역하게 한 뒤 곧 돌아가게 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궁색한 조치는 당시 「당국화물」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욕구를 쉽사리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 (4) 이슬람과의 교역

신라의 무역에서 특기해야 할 일은 아라비아·페르시아 등 이른바 이슬람 교권 상인들과의 교역이다. 이들과의 관계는 唐帝國이란 「거대한 호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始終한 것만은 아니다. 한국이나 중국측 문헌에서 신라와 이슬람 여러 나라와의 직접무역에 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몇몇 문헌에는<sup>87)</sup> 아랍·무슬림상인들의 신라 내왕이나 신라 見聞에 관한 기술과 함께 신라로부터 수입한 상품에 관한 기사도 실려 있다.<sup>88)</sup>

아랍 지리학자인 이븐 쿠르다지바(Ibn Khurdādhbih, 820~912)는 자신의 저서 《諸道路 및 諸王國志》에서 신라의 위치와 황금의 산출, 그리고 무슬림들의 신라 내왕에 관하여 서술한 뒤에 신라가 수출하는 상품명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중국의 동해에 있는 이 나라에서 가져오는 물품은 비단(綢緞)·劍·키민카우(kiminkhāu)·麝香·蘆薈·馬鞍·豹皮·陶器·帆布·肉桂·쿠란잔(Khulanjan)” 등이다. 이 밖에 고라이브·樟腦·高良薑 등이 있다.<sup>89)</sup>

85) 《續日本後紀》권 11, 承和 9년(842) 정월 10일.

86) 《續日本後紀》권 12, 承和 9년(842) 8월 15일.

87) Sulaimān, 《中國과 印度消息》(Paris, 1948),

Al-Masūdī, 《黃金草原과 寶石鑑》(Baghdad, 1938).

88) 무함마드 간수, 〈新羅와 西城間の 文物交流〉(《新羅·西城交流史》, 檀國大 出版部, 1992), 236쪽.



키민카우와 쿠란잔이 어떠한 물품인지는 모르지만 고라이브는 人蓼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다. 검과 표피나 인삼·생강 등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다량 수출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이 모두가 이슬람으로 수출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수출상품의 하나인 노회는 그 원산지가 아라비아·아프리카 등 지역이며 이 漢字 이름도 그리스어의 Aloe에서 Alue(아라비아어), Alwa(페르시아어)로 음이 바뀌어진 것을 중국에서는 蘆薈·奴會·納會 등으로 음사한 것이다. 또 신라 수출품으로 되어 있는 장뇌도 아열대지방의 산물로서 신라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아니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당시 상품의 역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다양성도 엿볼 수 있다.

《삼국사기》권 33, 志 2, 色服 車騎 器用 屋簷조에 보면 외래상품명이 많이 기재되어 있다. 색복조에는 孔雀尾·翡翠毛·瑟瑟·玳瑁 등이 보인다. 공작미는 인도·동남아 일대와 중국의 남부에도 분포·서식하는 공작의 꼬리 부분이지만 翡翠毛는 翡翠鳥의 털(Kingfisher's Feathers)을 말한다.<sup>90)</sup> 주산지는 캄보디아이고 털의 색깔은 翠色으로 진귀하며 극히 사치한 상품은 毛緞 같이 꼬아서 짠(撚織) 것이었다. 중국 宋代에도 이 「翠毛박이 비단」의 착용을 금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이때에도 최고의 사치품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瑟瑟에 대하여 《삼국사기》에는 다만 眞骨女人의 빗(梳)이나 冠, 또는 六頭品女의 빗에 “瑟瑟鈿(박이)을 禁한다”는 기사가 있을 뿐 다른 설명이 없다. 진골녀의 빗과 관에瑟瑟박이를 금지하였다고 하면 그리 흔한 물품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에 관하여 비교적 많은 중국측 자료를 정리해 보면 주산지는 타슈켄트며 碧石의 보석으로 추측된다.<sup>91)</sup> 중세 동서교역의 총아인

89) Ibn Khurdādhbih, 《諸道路 및 諸王國志》(Leiden, Brill, 1968). 그런데 헨리 윌(H. Yule)과 앙리 콜디어(H. Cordier)의 연구(H. Yule & H. Cordier, *Cathay and the Way Thither*, Vol. I, London, 1915)를 참고한 李龍範의 글에서는 그 품목의 수와 내용에서 진자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李龍範, 〈處容說話의 一考〉, 《震檀學報》32, 1969, 30쪽). 그는 “수출품은 고라이브(Ghorairb)·水溶性樹膠·蘆薈·樟腦·帆布·馬鞍·磁器·綢緞·肉桂·高良薑 등”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劍과 豹皮가 빠진 대신에 고라이브·樟腦·高良薑이 첨가되어 있다.

90) 趙汝迵, 《諸蕃志》下, 翠毛·周去非, 《嶺外代答》권 9, 翡翠조 등 중국문헌에 이 세의 서생지·생태·기묘한 포획방법·용도 등을 기술하고 있다.

回鶻상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가지고 온 주요 상품에 이 슬슬이 빠지지 않았던 것을 보면, 이 보석에 대한 唐人들의 호기심을 족히 엿볼 수 있다. 신라에서 이에 대한 금령이 내려진 흥덕왕 9년(834)경에는 신라귀족도 漢民族에 못지 않은 소유욕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sup>91)</sup>

玳瑁(瑯玕)의 생산지는 보르네오·필리핀 군도·자바 등지이며 그 해안에서 포획되는 龜甲의 일종이다. 그것은 黃色을 띤 검은 반점이 있는 반투명체로 장식용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車騎조에서도 진골의 수레 재료에 이것을 쓰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고, 屋舍조에서도 진골과 6두품의 床에 대모 장식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대모는 빗에서부터 車材·床의 장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용된 사치성 물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車騎조에 紫檀·沈香이란 물품명이 기록되어 있다. 자단은 불교에서는 「旃檀」이라고 하며 학명은 *Pterocarpus Satarinus*이다. 자바와 스마트라 서북에서 산출되는 향기나는 목재이다. 침향은 그 학명이 *Aguilaria Agallocha*로서 역시 향기있는 목재로 주로 占城國(Campa)·스마트라에서 생산된다. 이들 香木은 “眞骨이 사용하는 수레의 材木으로 쓰여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진골에서 4두품 남녀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단이나 침향을 鞍橋에 쓰지 못하도록 하였다. 屋舍조에서도 진골은 침향을, 6두품은 자단과 침향을 床에 장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器用조에 “6두품·5두품은 물론 4두품에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毳毼·毼毯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구유는 중국에서는 毼毼로도 표기하는데 털갈개를 말한다. 답등은 氍毹 또는 毼毼으로 쓰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모두 羊毛를 주성분으로 하여 雜毛를 섞어서 짠 문양이 있는 페르시아 직물이라는 점에

91) 《舊唐書》권 104, 列傳 54, 高仙芝 : 《新唐書》권 135, 列傳 60, 高仙芝·권 221 上, 列傳 146 上 西域 上 于闐 및 《資治通鑑》권 216, 唐紀 32, 玄宗 天寶 9載. 슬슬이 어떠한 종류의 보석인지는 뚜렷하지 않다. 로퍼(Laufer)는 보석으로서의 슬슬은 이란어 Se-Se를 음사한 것이며, 에메랄드(Emerald)일 것이라 추측하였다(B. Laufer, *Sino-Iranica*, Chicago, 1919, p.516).

92) 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品>(《李弘植博士回甲記念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1969), 103쪽.

는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답등은 구유에 비해 더 섬세하며 북부 인도에서도 산출되나 로마·오리엔트(Roman-Orient)의 것이 가장 색채가 선명하다고 한다. 이 답등·구유는 페르시아의 坐具用 모직물이며 그것도 榻(페르시아어 Takht·Takhta가 원어)이라는 페르시아 坐具에 까는 깔개이다.<sup>93)</sup>

위에 언급한 《삼국사기》雜誌에 보이는 외래품 외에도 특수향료의 수입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 예로 1966년 경주 佛國寺 釋迦塔에서 발견된 향은 乳香으로 밝혀진 바 있다.<sup>94)</sup> 유향(Frankincense, 아랍어 Lubān 혹은 Kundur, 범어 Kunduru)은 아라비아반도의 남단에 위치한 하드라모우드(Hadramout)나 질리(Gilead) 연안에서 생산되는 薰陸香·馬尾香·天澤香·摩勒香·多伽羅香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는 향료이다. 《諸蕃志》하, 유향조에 의하면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하여 스마트라의 파렘방(Palembang)에 集貨되었다가 중국으로 수출되었다. 이들의 수출품에는 물론 安息香(Styrax Benzion) 등 다른 고가의 향료도 포함되어 있다.

각종 유리기구도 고급 사치품으로 수입되었다. 아라비아(大食) 유리의 특수성을 《제번지》하, 유리조에는 “습기에 깨지지 않고 추위와 더위에 잘 견디며 물속에서도 못쓰게 되지 않는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신라귀족들도 이러한 유리기물을 애용하였던 흔적을 현존하는 유물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다. 金冠塚·瑞鳳塚·天馬塚·皇南洞 98호 北南墳 등 5~6세기 고분에서 총 18여 점의 유리기구가 발견되었다. 그 재료나 제조기법, 장식형태와 색깔 등으로 미루어 보아 대체로 후기 로마글래스(비잔틴 유리)계에 속한다고 한다.<sup>95)</sup>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유리군에 속하는 대표적인 유리공예품에도 페르시아(사산조)계의 제품들이 발견되고 있다. 漆谷郡 松林寺五層墳塔에서 발견된 병 2점을 비롯하여 경주 皇龍寺塔址·芬皇寺石塔·皇福寺三層塔·佛國寺 釋迦塔·益山 五層石塔 등에서 총 8점의 유리병이 발견되었다.<sup>96)</sup> 이와 같이 로마의 유리기구가 고신라고분군에서 출토되고 페르시아계 유리병 등이 통일신라의 寺塔에서 발견되

93) 李龍範, 위의 글, 98쪽.

94) 閔泳珪, 〈예루살렘 入城記〉(《연세춘추》 456·457, 1967).

95) 무함마드 간수, 앞의 책, 245쪽.

96) 무함마드 간수, 위의 책, 247쪽.

었다는 사실은 東西文物交流史上 신라문화의 변모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신라의 통일을 전후하여 당의 서쪽 長安에는 거의 만에 가까운 西城人이 거주하고 있었다.<sup>97)</sup> 天寶(742~755) 이후에는 급증하여 780년경에는 장안에 만도 50,000여 명에 이른다.<sup>98)</sup> 한편 해양교통이 발달함에 따라 아라비아·페르시아 상인들은 인도양을 넘어 자바·스마트라·캄보디아 등 「南海」 일대까지 상업시장을 넓혀갔다. 그러면서 8세기초에는 남중국 무역의 중심지인 廣州로 진출하고 다시 福州·泉州·洪州(南昌)·杭州·明州(寧波)로 북상하여 운하를 따라 蘇州·揚州에까지 그들의 시장을 확대해 나갔다.

《唐太和上東征傳》에 보면 당시 광주에는 “香藥·珍寶를 산적한 婆羅門·波斯(페르시아)·崑崙 등의 배가 수없이 많았고 師子國·大石國 사람들이 왕래 거주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아랍의 역사가 아브 자이드(Abu Zaid, 9~10세기)와 알 마스디(Al-Masudi, 10세기)는 당말 黃巢의 난(875~884)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전자는 황소 농민군이 복주를 거쳐 광주로 진출하여 이를 함락하고 “이슬람교도·유태교도·기독교도·배화교도 등 이곳에 살면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실로 12만 명이나 죽었다”고 하였으며, 후자는 주민들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학살했다고 적고 있다. 인원수에 과장된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에 거주하던 대식인·파사인들의 수를 짐작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이 아랍·페르시아의 거주민만도 십수만을 헤아리게 되니 당 정부는 일찍부터 이들의 거주지를 특수지역으로 지정하여 「蕃坊」을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현종 개원 2년(714)에는 「市舶使(司)」를 두고 이들과의 무역업무도 관리하게 하였다.<sup>99)</sup>

양주에도 많은 아랍·페르시아 상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신당서》 田神功傳에는 그가 양주에서 “大食(아랍)·波斯·賈胡”를 수천이나 학살했던 사실이 수록되어 있으며,<sup>100)</sup> 《全唐文》 太和 8년(834)의 칙문도 많은 「南海蕃舶」

97) 《唐會要》 권 73, 安北都護府.

98) 沈福偉, 《中西文化交流史》(上海人民出版社, 1985), 156쪽.

99) 金文經, 〈張保臯 해상왕국의 사람들〉(《張保臯—해양경영사연구—》, 1993), 109쪽.

100) 《新唐書》 권 144, 列傳 69, 田神功.

과 「蕃客」이 嶺南의 福建과 揚州에서 내왕·칩거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sup>101)</sup> 원인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양주의 孝感寺 瑞像閣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파사국과 占婆國의 상인들에게 분담시킨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sup>102)</sup> 이 시기 신라 무역상인들도 이 두 지역에서 교역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한 자료들이 허다하게 발견된다. 《속일본후기》에 보면, 신라상인들이 康州(廣州)에 표류하던 일본인 50여 명을 데리고 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고<sup>103)</sup> 日本僧 원인은 그의 일기에서 양주에 체류하는 동안 신라인 국제무역상 王請·王宗을 만났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朱景玄의 《唐朝名畫錄》에도 貞元末(804) 신라상인이 江淮에서 수십 점의 그림을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 간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신라는 통일 이후 당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면서 사신을 비롯하여 승려·유학생·상인 등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왕래하였다. 이미 경주는 長安에서 크게 유행하던 西域風의 정취를 닮아가고 있었다. 「三十五金入宅」으로 표현되던 특수 부유층들은 사치성 소비재를 제공해 주는 이슬람상인들의 왕래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무역거점 「번방」을 구축하고 무역권을 확대해 가던 이들이, 세계무역사의 새로운 단계에 가담하고 있었던 신라인 무역업자와 在唐 「新羅坊」사람들과도 자연스런 상거래를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신라 귀족들이 애용하던 많은 이국상품은 재당 신라상인들의 모국을 상대로 한 무역활동에서 가지고 올 수 있었을 것이고, 한편 상업활동이 왕성하던 이슬람상인이 직접 반입하였다고 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 3) 당에서의 활동

唐代 중국땅에는 많은 신라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山東半島 연해안과 淮水와 大運河 변, 그리고 長江 하류 및 남중국 연해안에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sup>104)</sup>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착한

101) 《全唐文》 권 79, 疾愈德音 太和 8년(834).

102)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1, 開成 4년(839), 정월 7일.

103) 《續日本後紀》 권 15, 承和 12년(845) 12월 5일.

사람들이다. 그들 중에는 옛날 고구려와 백제에서 전쟁포로가 되어 강제로 끌려온 사람도 있었고, 굶주림을 피해 온 사람, 해적들에 나포되어 팔려온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 해외발진기에 진출해 온 貿易商人・留學生・求法僧・軍人・船員・農民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시간과 나라와 경우를 달리하면서 건너 온 이들 정착민들은 긴 역사의 흐름속에서 서로 융합하여 「신라인」으로 각자의 생업에 전념해 갔다.

### (1) 유학생과 문인의 교류

신라가 唐에 처음으로 子弟를 보내어 國子監에 입학시킨 것은 宣德王 9년(640) 5월의 일이다.<sup>105)</sup> 이 뒤 소위 「宿衛學生」의 이름으로 많은 학생이 왕래 수학하였던 것이다.<sup>106)</sup> 그리하여 僖康王 2년(당 開城 2년, 837)에는 그 당시 당의 國學에서 수학하던 유학생은 모두 216명이나 되었다.<sup>107)</sup>

사실 신라인의 유학열은 9세기초 당이 외국인을 위하여 실시한 賓貢科 제도가 한층 자극시켰다고 생각된다. 長慶 元年(憲德王 13년, 821) 金雲卿이 처음으로 빈공과에 登第한 이래 唐末까지는 58명이, 五代(梁・唐)에는 32명이 급제하였다고 전하니 대략 90명이나 되는 셈이다(발해 10명 포함).<sup>108)</sup> 그렇다면 등과하지 못한 유학생의 수는 이들의 십수배나 되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文宗 開成년간(836~840)에만 해도 귀국한 학생들의 수는 300여 명이나 되었다.<sup>109)</sup> 이러한 사실은 또한 文聖王 2년(840)에 당이 수업연한이 끝나 마땅히 귀국하여야 할 유학생 105명을 放還케 하고 있는 것에서도 뒷받침된다.<sup>110)</sup>

104) 金文經, 〈在唐新羅人の 集落과 그 구조—《入唐求法巡禮行記》를 중심으로—〉(《李弘植博士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新丘文化社, 1969), 106~116쪽.

105) 《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선덕왕 9년・《新唐書》권 44, 志 34, 選舉 上・《新唐書》권 198 列傳 123, 儒學 上 및 《唐會要》권 35, 學校.

106) 申滢植, 앞의 책, 354~359쪽.

金世潤, 〈新羅下代渡唐留學生에 대하여〉(《韓國史研究》 37, 1982), 150~152쪽.

107) 《唐會要》권 36, 附學讀書.

108) 《東文選》권 84, 送奉使李中父還朝序.

安鼎福, 《東史綱目》권 5上, 眞聖女王 3년.

109) 嚴耕望, 〈新羅留學生與僧徒〉(《歷史語言研究所集刊》外編 제4종, 中央研究院, 1961), 653쪽.

110) 《三國史記》권 11, 新羅本紀 11, 文聖王 2년・《舊唐書》권 199 上, 列傳 149 上,

신라가 당으로 유학생을 처음 파견한 이래 멸망할 때까지 근 300년간 그 수를 줄잡아 2,000여 명이나 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sup>111)</sup>

安鼎福(1712~1791)은 《三國史記》와 《東文選》에서 빈공과 及第者 20명을 찾아내고 그 명단을 밝히고 있다.<sup>112)</sup> 그러나 근자에 와서 학자들의 연구로 52명의 人名을 찾아내었다.<sup>113)</sup> 그런데 이 많은 유학생들 가운데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唐文士의 누구와 교유하였는지는 상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이들 빈공과 출신의 몇몇의 행적을 통하여 이들은 훌륭한 외교사절로서의 책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唐人士들과의 교유로 신라문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불교와 도교 및 神仙術·老莊思想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그 영향을 받았다. 더욱이 禪宗의 깊은 이해는 3교융합은 물론 새로운 사회의 방향제시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sup>114)</sup> 그러므로 빈공과 급제자 가운데 벼슬을 제수받았던 인사 가운데 행적이 뚜렷한 최치원을 예들어 그의 교유관계를 살피고 그의 문화적 축적이 어떠했는가를 고찰하여 당시 유학생·빈공급제자들의 在唐生活의 한 면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新唐書》藝文志에는 최치원의 재당문학활동의 소산인 《四六》1권과 《桂苑筆耕》20권이 기재되어 있다.<sup>115)</sup> 당문사가 아니면서 그 이름이 예문지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최치원은 憲安王 원년(857) 왕도 慶州 沙梁部の 한 6頭品 가문에서 출생하여 12세 때 당에 유학하였다. 景文王 14년(874) 그의 나이 18세가 되던 해에 빈공과에 급제하여 江南道 宣州 溧水縣尉에 제수되어 관인생활을 시작하였다.<sup>116)</sup> 최치원은 黃巢의 亂(875~884)이 일어난 뒤 縣尉직을 사임하고 淮南에 있던 중 乾符 7년(880) 黃巢討伐軍의 최고 지휘관(諸道行營兵馬都統)이 된 淮南節度使 高駢(821~887)의 從事官

東夷 新羅·《新唐書》권 220, 列傳 145, 東夷 新羅·《唐會要》권 95, 新羅.

111) 嚴耕望, 앞의 글, 653쪽.

112) 安鼎福, 《東史綱目》권 5 上, 진성여왕 3년.

113) 金世潤, 앞의 글, 160쪽.

114) 申滢植, 앞의 책, 448쪽.

115) 《新唐書》권 60, 志 50, 藝文 4.

116) 李基東, 〈新羅下代 賓貢及第者の 出現과 羅唐文人의 交驩〉(《全海宗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一潮閣, 1979), 640쪽. 嚴耕望은 離家時年 12, 登科時年 19, 歸本國時年 30으로 보고 있다(앞의 글, 649쪽).

이 되었다. 헌강왕 11년(885)초 귀국할 때까지 4년 넘게 고병의 막하에서 文筆을 맡고 있었다.

최치원은 그의 재당 18년간의 후반을 강남에서 지냈다. 당 문사와의 본격적인 교류도 종사관 재임기간에 이루어졌다. 고병 역시 이름있는 詩人이었다.<sup>117)</sup> 그 뒤 고병은 神仙長生術에 빠져 끝내 폐가하고 말았다. 최치원도 그의 영향을 받았는지 그의 글 가운데는 神仙·道術의 풍이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江南佛教가 크게 번창하고 儒釋交遊도 빈번하던 때라 그도 佛法을 깊이 이해하고 高僧大德·佛寺에 관한 많은 글(金石文 등)을 남기고 있다. 그의 종사관 동료 가운데는 문사 顧雲·裴錮가 있다. 고운은 최치원과 같은 해 급제한 池州(安徽省 貴池縣) 출신이었다. 그는 고병 막하의 종사관의 수장직인 都統判官직에 있으면서 최치원을 고병에 추천한 인물로 추측된다.<sup>118)</sup> 《신당서》예문지에는 그의 저작 서목이 기재되어 있어 왕성했던 그의 활동을 짐작케 한다.<sup>119)</sup> 특히 최치원과는 친교가 깊었던 듯 그의 문집에는 고운에게 화답한 七言律詩 2수가 남아 있다. 훗날 최치원이 귀국할 때 그가지어 이별을 아쉬워했던 送別詩는 《삼국사기》권 46, 崔致遠傳에 요약 전제되어 있다.

최치원의 교류는 종사관 동료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의 《계원필경》권 7·8·9·10에는 鄭畋(禮尙)·鄭凝績父子를 비롯하여 蕭遘(戶尙) 裴哲(禮尙) 鄭從讜(吏尙) 李蔚(吏尙) 등 명사들과도 교분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鄭畋(825~883)의 문학은 뛰어나고 깊으며 더욱이 시부에 능하였다고 하니<sup>120)</sup> 그는 당대의 일류문사들과도 교분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삼국사기》에서 그의 傳을 보면 余杭詩人 羅隱과도 가까이 지낸 듯하다. 宰相 정전·이울과도 친분이 두터웠던 나은의 시문은 천하에 널리 알려져 특히 詠史에 빼어났다고 했다.

117) 《全唐詩》9권 7책. 최치원도 자주 그에게 시를 지어 바치기도 했다(崔致遠, 《桂苑筆耕集》권 17).

118) 今西龍, 〈新羅崔致遠傳〉(《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 375쪽.

119) 顧氏編遺十卷, 荅川總裁十卷, 纂新文苑十卷, 啓事一卷 賦二卷, 集遺具錄十卷(《新唐書》권 60, 志 50, 藝文 4).

120) 《舊唐書》권 178, 列傳 128, 鄭畋.



최치원은 고운과 同鄉인 張喬와의 교분도 돈독하였다. 《동문선》 권 12에는 장교의 시에 화답하는 칠언율시가 수록되어 있다. 《신당서》 예문지 4에 〈張喬詩集〉 2권이 등재되어 있어 어진 선비의 한 사람으로 알려진 저명한 시인이다. 그는 進士에 급제하였으나 황소의 난을 만나 향리 가까운 九華山(安徽 貴池 東南)에 은거하였다. 당시 구화산은 신라승 金地藏(喬覺, 696~794)<sup>121)</sup> 이후 불교성지로 이름나 있어서 많은 신라인·신라승들이 순례, 留錫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장교는 金夷魚·朴球·朴充 등 신라인 문사뿐만 아니라 雅覺·頭陀僧을 비롯하여 이름모를 禪僧에게 送詩로 석별의 정을 나누기도 하였다.<sup>122)</sup> 이와 같이 장교는 당문사의 누구보다도 신라인 유학생·유학승들과 광범위하게 친교를 맺고 있었다. 이점에 특히 주의해 볼 만하다.

300년에 가까운 장기간에 걸친 唐文化의 수용과 축적으로 신라사회의 지적 분위기는 唐風으로 물들어 갔고, 신라 말기의 혼란을 극복하면서 고려사회의 성립과 그 국가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식인 가운데 중국유학생, 특히 빈공과 출신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시금 주목되는 일이다.

## (2) 구법승의 순례

佛法을 찾아 중국으로 건너간 승려들의 수도 유학생 수에 못지 않게 많다. 진흥왕 10년(549) 신라승 覺德이 중국 남조의 梁으로 求法길에 나섰고,<sup>123)</sup> 明觀도 같은 왕 26년 陳에서 구법한 뒤 經論 1,700여 권을 가지고 귀국하였다.<sup>124)</sup> 그 뒤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隋·당에 건너가 구법활동을 하거나 그곳에 머물면서 弘法에 전념한 승려의 수는 족히 기천에 달했을 것이다. 《三國遺事》에는 원광법사가 西學에서 귀국한 뒤 승려들의 발길이 연이어져 끊이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그 당시 入唐求法僧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sup>125)</sup> 최치원도 “儒者이건 佛者이건 할

121) 《宋高僧傳》 권 20, 唐池州九華山化城寺 地藏傳

122) 《全唐詩》 10합 1책.

123) 《海東高僧傳》 권 2.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124) 위와 같음.

125) 《三國遺事》 권 4, 義解 5, 圓光西學.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入唐하였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sup>126)</sup>

당 義淨(635~713)의 《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는 중국에서 인도로 간 구법 승려들이 58명이나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신라승 9명(失名僧 2명 포함)과 고구려 승려 한 사람도 보인다.<sup>127)</sup> 이들은 대개 삼국통일 이전에 天竺으로 향발하였던 승려들이다. 그 뒤 慧超(700?~780?)도 아마 開元 11년(성덕왕 22년, 723) 무렵 중국 廣州에서 배를 타고 천축으로 간 것이 분명하다. 먼저 입당 구법하다가 다시 천축으로 翫法하러 간 신라승들의 수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에 머물며 구법하던 僧徒들을 종파별로 분류하여 130여 명이 찾아졌다.<sup>128)</sup> 그러나 史籍에 보이는 승려 전부를 빠짐없이 망라하였다 해도 사적에 이름이 남지 않은 허다한 구법승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원인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보면 赤山村(山東省 榮成市 石島鎮)에 건립한 新羅僧院인 法華院에는 常住僧尼가 27명이 유석하고 있었다.<sup>129)</sup> 그러나 인근의 天門院이나 劉村의 僧院에는 얼마나 많은 신라승이 상주하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또 그는 武宗(841~846)의 불교탄압이 한창일때 左神策軍 軍容院에 소환된 長安 東半部の 外國僧 21명 가운데 10명이 신라승이었음을 밝혀주고 있다.<sup>130)</sup> 이 밖에 외국승으로 祠部의 牒이 없어 還俗된 자 가운데 신라승이 매우 많았다는 사실<sup>131)</sup>은 在唐 신라승들의 한 면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원인은 五台山 순례길에 오르면서 登州府 南街에 신라관이 있었다는 소식과 靑州府 龍興寺와 長山縣 醴泉寺의 신라원에서 유숙했던 사실을 전하고 있다.<sup>132)</sup> 당시 里程을 충실히 기록했던 원인도 청주 장산현에서 서북쪽 오대

126) 崔致遠撰, 〈眞鑑國師碑銘并序〉(《海東金石苑》 권 1).

127) 《三國遺事》 권 4, 義解 5, 歸竺諸師조에는 실명승 2명을 포함 도합 10명이 된다.

128) 高柄翊은 〈支那入學僧表〉(李能和, 《朝鮮佛教史》, 朝鮮史講座分類史, 조선사학회, 1926, 53쪽)를 교정 보완하여 〈新羅僧求法入唐表〉(高柄翊, 《東亞交渉史의 研究》, 서울대 出版部, 1970, 65~68쪽)를 작성하여 약 90여 명의 이름을 수록하고 있다. 嚴耕望은 당에 머물며 구법하던 僧徒들을 종파별로 분류하여 130여 명을 찾아 내고 있다(嚴耕望, 앞의 글, 678쪽).

129)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2, 開城 5년(840) 정월.

130)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3, 會昌 3년(843) 정월 27일.

131)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4, 會昌 5년(845) 4월 15일.

132)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2, 開城 5년(840), 3월 2일·21일, 4월 5일·6일.

산으로 길을 바꾸었기 때문에 서남쪽 황하유역을 따라 장안에 이르는 간선 도로변에 있었을 신라관·신라원에 관한 기록을 더 이상 남기고 있지 않다. 다만 후일 그의 후학 圓珍(814~891, 5세 좌주)이 장안에 머물 때 左街 龍興寺의 신라원에서 기거한 적이 있어 그 당시의 사정을 짐작할 따름이다.<sup>133)</sup>

지금의 晒字鎮 곤유산(烟台市 곤유산 林場 제2분장) 아래에는 신라승원이라 전해오는 無染院 절터가 있다. 우리 나라 禪門九山の 하나인 聖住山派의 조사 無染禪師(801~888)가 세우고 기거하였던 곳이라 믿어진다. 《모평현지》에는 光化 4년(天復 원년, 901) 3월에 세운 「唐無染院碑」의 銘文이 수록되어 있다. 주로 무염원 重修 때 대시주들의 이름과 여기에 관계된 신도들의 성명이 나열되어 있다. 그들 가운데 「鷄林人 金淸押衙」의 이름이 보인다. 그는 이 절의 중창을 주관했던 단월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 승원에는 신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 「句當新羅所」까지 설치해야만 했던 文登의 땅에 그것도 적산촌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과 「계림인 김청압아」가 대시주였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무염선사와 관계있었던 사찰임이 분명하다.<sup>134)</sup>

宋 道原의 《景德傳燈錄》에는 과거 7佛에서 法眼文益(885~958)에 이르는 禪僧 1,701명의 傳燈法系를 상술하고, 外國僧 43명도 함께 등재하고 있다. 그 가운데 42명이 신라승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경덕전등록》에 기재된 초기 승려들의 師承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지만 신라승의 경우는 대부분 唐末·五대의 일이라 믿을 만하다. 이 중 35~36명이 강남 각지에서 習禪하였다. 그러므로 신라 禪門九山の 開山祖는 단 두분 즉, 京兆 章敬寺 懷惲法系の 玄昱(鳳林山, 경남 창원)과 蒲州 麻谷寺 寶徹法系の 無染(聖住山, 충남 보령)을 제외하고는 모두 長江유역에서 구법한 스님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에다 曦陽山(경북 문경 鳳巖寺) 一山만이 四祖 道信의 法系이고 그 나머지는 曹溪法系이다. 그리고 또 조계법계 八山 가운데 須彌(황해도 해주 廣照寺) 一山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江西馬祖의 법계를 잇고 있다.

《嘉定赤城志》권 2, 黃岩縣條에 보면 “신라방은 현 동쪽 1리에 있고 옛 志에 五代 때 신라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으므로 이름하였다”고 있다. 지금의 黃

133) 圓珍, 《行歷抄》.

134) 金文經, 앞의 글(1993), 107쪽.

岩市 城內의 柏樹巷 일대라고 추정한다.<sup>135)</sup> 또 권 14, 寺院(黃岩縣)條에는 田 84畝, 地 6畝, 山 18畝를 소유한 제법 큰 사찰인 悟空院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이 寺院이 신라승원이라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는 없다. 그런데 《天台全誌》 권 6, 寺院條에 보면 天台宗 本山 國淸寺 앞에 신라승 悟空이 세운 「新羅園」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필경 이 오공이 국청사에서 구법한 뒤 황암의 신라방에 이르는 길목에 오공원을 세워 상주한 바로 그 스님이라 믿어본다. 마치 山東의 赤山村에 新羅僧院인 法華院이 건립된 이치와 같다고 하겠다.

《赤城志》 권 28, 禪院에 의하면 오공원은 황암현 東鎮山(東南 300里 海中)에 있는 禪院이다. 後晉 天福 6년(941)에 건립되어 宋 英宗 治平 3년(1066)에 賜額된 사찰이다. 이 동진산은 唐 武后 永昌 원년(689) 이후 해상교통로의 중요한 길목으로 부각되었던 것 같다. 台州에서 明州를 거쳐 신라·고려로 행하는 航線상의 요충지였던 것이다. 《적성지》 권 20에는 ‘縣東 240리’에 위치한다고 있어 앞의 내용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산 위에서 바라보면 바다 가운데 큰 돌이 돌출해 있는데 배를 타고 고려로 가는 자는 반드시 이 돌을 길잡이로 삼았다’고 있다. 오공원과 신라방 그리고 신라·고려에 이르는 항선을 고려한다면 동진산 오공원과 국청사 신라원을 세운 스님은 같은 오공임이 틀림없는 것 같다.

이 밖에 《天台全誌》 권 7, 釋條에는 唐 景福 원년(892) 天台山 平田寺에 留錫한 신라승 道育에 관한 흥미있는 기사도 남기고 있다. 중국에 유학하여 天台敎義를 學習한 新羅高僧 7명 가운데 後晉 天福년간(936~941, 아마 漢周년간)에 국청사에 와서 높은 학덕을 닦아 천대 16대의 祖師가 된 고려승 寶雲尊者가 있다는 사실이다.<sup>136)</sup> 異國僧으로 중국의 천대법통을 계승하였으니 그의 학문의 심오함을 족히 짐작할 수 있겠다.

신라 下代의 불교를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강남에 유학하여 習禪하였던

135) 林土民, 〈唐·吳越時期浙東與朝鮮半島的通商貿易和文化交流之研究〉(《고·중세시대의 한중문화교류사》, 문화체육부, 1993), 57쪽.

136) 《佛敎統紀》 권 8, 寶雲尊者義通·《天台全誌》 권 7, 釋.

嚴耕望은 중국에 유학하여 天台敎義를 學習한 新羅高僧들을 佛祖統紀에서 찾아내어 그들 7명의 師承關係를 밝히고 있다(嚴耕望, 앞의 글, 659~660쪽).

많은 스님들의 역할에 생각이 미친다. 선문9산의 근원지이며 《祖堂集》 편찬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강남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935년 신라가 망한 뒤에도 계속 이곳에 남아 구법하여 五代 江南佛教의 발전과 신생 고려국가의 불교문화 번창에 이바지한 승려들의 역할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만하다.

이와 같이 신라승들은 광대한 중국대륙의 어느 곳에서나, 심지어는 황량한 서역에서까지도 寺院의 「職僧」으로 師僧으로 혹은 譯經場의 학문승으로 또는 山間村落的 「化俗法師」로 흥법활동에 전념하였다. 唐僧 海雲의 《兩部大法相承師資付法記》에 “신라승 수만이 몸을 잊고 勝法을 구하러 入唐하였다”고 한 내용에서 저간의 소식을 알 만하다.

### (3) 재당신라인과 무역상

신라는 7세기 중엽 통일제국을 수립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형성하였지만 8세기말경에 오면 진골귀족들의 도전을 받아 무너지고, 9세기에 접어들면서 호족들의 지방분권적 할거상태가 시작된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일은 이와 같이 중앙통제력이 약화되고 지방도호들이 할거하게 되자 오히려 인민대중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는 점이다. 놀랍게도 그들은 그 저력을 해상진출과 교역활동에 쏟아넣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교역권을 형성하고 羅·唐·日 3국간을 종횡무진 항해하면서 그 주인 노릇을 톡톡히 수행했던 것이다. 실로 우리 나라 역사상 인민들의 해상진출과 교역활동이 이 때처럼 활기찼던 시기는 달리 찾아볼 수 없다.

8세기경 신라인들은 동아시아 3국간의 교역뿐만 아니라 세계무역사의 새로운 단계, 즉 동서해상무역의 초기단계에 가담한다. 이 시기는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아라비아·페르시아 상인들이 南海航路, 또는 「香藥의 길」이라고도 하는 바닷길을 통하여 광주와 양주까지 내항하고 있었다. 신라인 무역업자와의 교역은 자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신라인들은 아라비아·페르시아 상인들이 地中海나 中東의 해안에서 수행하였던 그러한 구실을 동쪽의 세계에서, 그것도 전자에 비해서 훨씬 위험한 해상에서 수행해 갔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해상활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중국의 동·남쪽 연안

과 대운하 변에 산재하고 있던 신라인 촌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山東半島의 연해안에서 대운하의 연변, 그리고 淮水·揚子江 河口, 揚州·楚州(淮安)·明州(寧波)·泉州·福州·廣州에 이르는 지역은 물론, 唐·일본·신라를 잇는 삼각무역에도 참여하여 세계무역의 일익을 담당해 갈 수 있었다.

일본의 구법승 원인은 838년 7월부터 847년 초겨울까지 9년 반 동안이나 당의 동해안 일대와 광대한 제국의 내륙 등지를 여행하면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入唐求法巡禮行記》라고 알려진 이 책은 당을 여행하였던 일본승의 일기지만 전권을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의 반 이상은 당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아닌 신라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도 이 승려의 일기를 통하여 당시 당에 거주하던 신라인 마을의 분포나 조직, 그리고 그들의 생업과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생생히 밝힐 수 있다.

신라사람들의 마을은 산동반도 남해안 일대에서 海州(連雲港市), 그리고 대운하 변과 揚子江口·강남 연해안을 따라 집중되어 있었다. 이 지역에 산재해 있던 마을들을 연결해 보면 당시 신라와 당의 경제중심지를 이어주는 자연의 수로가 형성된다. 그리고 산동반도 연해안의 중심지는 적산촌이 분명하며, 대운하 변의 심장부는 楚州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揚州·明州·황암에도 신라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양주부에 王請과 王宗 등을 중심으로 한 신라인 국제무역상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이미 논급하였지만 《江都縣志》권 16에는 北宋 元豐 7년(1084) 이곳에 高麗館이 설치되었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근자 고려관 유적지 인근에서 신라자기와 고려청자의 파편이 수거된 바 있다.<sup>137)</sup> 이로써 미루어 보면 이곳에는 신라 이래 우리 나라 사람들이 다수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라인 취락은 대운하 변을 따라 집중되어 있었고 그 심장부는 분명히 초주와 漣水鄉이었다. 개성 4년(839) 2월 일본 조공사 일행은 귀국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신라선박 9척과 해로에 익숙한 신라선원 60여 명을 고용하였다.<sup>138)</sup> 당정부는 다수의 신라 무역상인과 선원들 그리고 造船기술자와 선주들이 거

137) 金文經, 앞의 글(1993), 99쪽.

138)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권 1, 開成 4년(839) 3월 17일.

주하던 이 지역에 「신라방」을 설치하고 교민을 관장하는 「句當新羅所」를 두었다. 그리고 總管을 행정 책임자로 하고 그 밑에 「專知官」과 「譯語」 등을 두어 보좌하게 하였다. 초주는 회수 하류에 위치하여 대운하와 회수를 이어주는 경제적·전략적 요지였다. 淮·泗·汴·蔡·潁·渦河 등 수많은 하천이 직접, 간접으로 交會하여 이곳을 거쳐 흐르기 때문에 운송과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남으로는 양주를 거쳐 蘇州·杭州·明州 등 무역항으로 통과하고 서쪽으로는 와하·변하를 거슬러 올라가서 中原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양주·초주·연수항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던 신라인들은 거의 신라 해외발전기와 청해진 전성기(828~841)에 해양으로 진출하여 정착하였던 무역업자 또는 직업선원의 후예거나 당사자였다. 항해술에 능숙했던 이들은 신라·당·일본의 3국 무역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양주·광주 등을 중심으로 한 西方世界와의 교역도 활발히 전개해 갔다.

신라인들은 결코 대운하 변에만 거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海州(연운항시) 동해현 宿城村에도 촌장 王良의 지도 하에 소금생산을 업으로 하는 다수의 신라인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sup>139)</sup> 密州 연안의 大珠山 驕馬浦에는 木炭운송업자와 造船업자·선박수리업자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원인 일행이 적산촌에서 명주로 가던 도중 대주산 교마포에 도착하여 신라인 陳忠의 목탄수송선을 타고 초주까지 여행하였던 사실<sup>140)</sup>과 일본 조공사 선박이 풍파로 파괴되자 배의 수리를 교마포에서 하였던 사실<sup>141)</sup> 등은 이를 증명한다.

신라인 촌락의 흔적은 교마포 북쪽, 靑島의 동북쪽인 지금의 嶗山灣 부근의 승가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노산은 높은 바위산이기 때문에 해주의 동해산, 밀주의 대주산, 등주의 적산과 함께 당시의 항해에 있어 둘도 없는 좋은 표적물이었으며 기항지이기도 했다. 원인 일행은 일본무역에서 돌아온 신라인 金子白·欽良暉·金珍 등을 찾아 이곳에 정착하였다. 그 뒤 다시 그곳에居留하는 신라인 崔氏의 선편으로 초주총관 劉愼言에게 서신을 발송하고 신라인 王可昌의 선편으로 乳山浦를 출발하였다.<sup>142)</sup>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

139)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1, 開成 4년(839) 4월 5일.

140)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4, 大中 원년(847) 윤3월 17일.

141)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권 1, 開成 4년 4월 1일.

면 이곳에는 국제무역업자만이 아니라 광주·명주·양주·초주·산동반도를 왕래하는 연해안 상인들의 선박도 붐비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신라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하고 있었던 곳은 산동반도 남쪽 연안 일대였다. 牟平縣의 邵村浦·陶村, 海陽縣 동북의 유산포 등이 그 대표적인 마을이었다. 특히 유산포는 太子通事舍人 金簡中이 당 정부의 「告哀兼弔祭冊立等副使」가 되어 신라로 출발했던 곳이기도 하며, 일본 조공사 선단이 이곳에 정착했을 때 말과 노새를 탄 30여 신라인들과 많은 「娘子」를 목격한 곳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보면 이 마을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유산포 주변은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신라인들은 해운업·상업은 물론이거니와 농업에도 종사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말과 노새를 타고 왔다는 사실과 일본 조공사 일행이 필요로 한 식량을 인근 소촌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양주·초주·연수항이 양자강과 회수 하류 연안 및 대운하 변을 중심으로 한 신라인 사회의 중심지였다고 한다면 文登縣 淸寧鄉 赤山村은 산동반도 일대를 중심으로 한 그들의 심장부이다. 뿐만 아니라 당 대륙이나 연해안으로 이르는 교통과 신라·당·일본 3국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이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820년대초에 장보고가 건립한 新羅僧院 赤山法華院이 있어 당시 중국에 살던 신라인들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였다. 법화원은 연간 500석의 곡식을 수확하는 장전을 소유하고, 장보고 휘하의 張詠·林大使·王訓 등 3인에 의해 경영되었다. 상주승 24명, 尼 2명, 노파 3명 등 29명이 거주하였다. 일부 기록만 보아도 법화원에는 법당과 장경각을 비롯하여 승방·니방, 수 개의 객사, 식당·창고 등이 있었던 큰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신라인 사회의 규모는 당시 거행된 거울철 《법화경》강회에 모였던 스님과 신도들의 수로 추측이 가능하다.

開成 4년(839) 11월 16일에 시작하여 이듬해 정월 15일에 끝맺은 강회에는 매일 40명 안팎의 ‘男女道俗’·‘老少尊卑’와 유연시주들이 강청하였다. 강경의식은 신라풍속에 따라 신라말로 거행되었고 이 講筵의 마지막 2일 간에는

142)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권 4, 大中 원년(847) 6월 26·27일.



신도 250명과 200명이 각각 참례하였다.<sup>143)</sup> 이 사실이 곧 적산법화원을 중심으로 하여 산재해 있던 신라인 사회의 규모를 말해 준다.

적산촌은 신라와 당을 이어주는 가장 안전하고도 중요한 항로의 종착지이며 中原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기도 했다. 靑州兵馬使 吳子陳이 神武王의 ‘즉위를 경축하는 사신’이 되어 관현 30여 명과 함께 신라로 출발했던 곳도 바로 이곳이며 장보고의 「大唐賣物使」 선박 또는 「교관선」이 신라와 일본을 오고 간 곳도 바로 이곳이었다.

明州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찍부터 신라를 비롯하여 「南蕃」 및 西方 諸國 원항선박의 발착항구였다.<sup>144)</sup> 《資治通鑑》에도 당말의 명주가 강남 연안의 군사·교통·무역의 중요한 항구였음을 알려주고 있다.<sup>145)</sup> 뿐만 아니라 명주는 오대·송대에는 南海諸國은 물론 동북 여러 나라와의 해상무역의 중심항으로 번창하여 「市舶司」가 설치되어 있었다. 당시 외국상인들은 명주의 東渡門 안팎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신라상인들은 鎭明嶺 일대에서, 波斯人들은 동도문 안에서 많이 거주하여 波斯거리를 형성하기도 했다.<sup>146)</sup>

大中 원년(847) 6월초 일본승 원인은 귀국을 서둘러 신라 무역상인 金子白·欽良暉·金珍 등을 찾아 楚州를 방문하였다. 그곳 신라방 총관 劉愼言으로부터 金 등의 서신을 전해 받았다. 그 내용인 즉, 이들은 이미 5월 21일에 蘇州의 松江口를 출발하여 일본으로 가니 嶗山으로 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배를 타고 갈 日人 春太郎과 神一郎은 계약을 파기하고 명주의 신라인 張友信의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갔다는 내용과 춘태랑의 廣州 왕래를 기록하고 있다.<sup>147)</sup> 金 등은 명주·소주를 중심으로 일본을 수삼차 왕래한 국제 무역상인뿐만 아니라 산동반도 연해안에서 운하변을 따라 남북으로 오르내리면서 연안무역에도 종사한 新羅巨商들이다.

《赤城志》권 19, 山水門(臨海縣)條에 보면, ‘縣西三十里’에 ‘新羅山’이 있었다

143)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권 2, 開成 5년(840) 정월 15일.

144) 《唐會要》권 78, 諸使雜錄 上, 元和 14년.

《輿地紀勝》권 11, 兩浙東路慶元府 明州景物 下.

145) 《資治通鑑》권 250, 咸通 元年·권 252, 乾符 3·4년.

146) 林士民, 앞의 글, 57쪽.

147)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권 4, 大中 元年(847) 6월 9일.

는 사실과 ‘縣東南三十里’에 ‘新羅嶼’가 있어 옛날 신라상인들이 배를 정박시켰던 곳이라 하고 있다. 외국무역에 종사하던 선원들은 멀리서 이 신라산을 표적으로 삼아 신라서로 배를 착안시켰으리라 믿어진다. 신라산의 위치는 지금의 임해시의 성밖 뒤의 산으로 보고 三十里는 三리의 誤記라 하고 있다. 당시 신라상인들의 취락지는 임해현 城內의 通遠坊이며 이 산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지금 이 산에 있는 많은 옛 무덤은 객사한 신라상인들의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sup>148)</sup>

당나라의 저명한 시인 杜牧(803~852)은 장보고·정년의 전기를 지어 그의 문집에 싣고 이들에 대한 놀라운 관심을 표하고 있다.<sup>149)</sup> 특히 두목은 장보고를 安史大亂(755~763)의 진압에 가장 공이 컸던 당나라 장군 郭子儀(697~781)에 버금가는 인물로 평가하며 칭송하고 있다. 이 사실은 곧 장보고가 당에서 차지한 위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장보고의 용맹성과 의협심, 그리고 그가 가진 한없이 넓은 도량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저명한 시인 두목으로 하여금 전기를 쓰게 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며, 한편 장보고는 저명한 시인 작가의 전기대상이 될 만한 경이로운 인물로 당에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두목이 쓴 이 전기는 거의 그대로 중국의 正史인 《신당서》 권 220에 인용되었고, 다시 우리 나라의 《삼국사기》 張保臯·鄭年傳에 전제되었다. 더욱이 《신당서》의 편자는 “晋에 祗奚가 있고 당에 汾陽(곽자의)과 보고가 있는데 어찌하여 東夷에 인재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이고 있다. 물론 《삼국사기》의 편찬자도 장보고의 위용을 높이 평가하고, 인멸될 뻔했던 그의 존재를 건져낼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원인도 入唐하였을 때 筑前太守 小野末嗣로부터 장보고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가지고 왔다. 원인은 일본 조공사와 함께 입당하여 중국대륙을 구법순례할 「請益僧」이다. 이러한 신분의 원인이 장보고에게 전교될 태수의 서찰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그 당시 장보고의 국제적 위상이 어떠하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 나라 역사상 장보고처럼 중국과 일본 양국에 널리 알려진 인물은 찾

148) 林士民, 앞의 글, 58쪽.

149) 杜牧, 《樊川文集》 권 6.

아 보기가 힘들 것이다. 장보고가 당의 「軍中小將」이란 군직을 버리고 신라로 돌아와 士卒 1만을 거느리고 莞島에다 「淸海鎮」을 설치한 해는 흥덕왕 3년(828)의 일이다. 이 시기는 노비매매가 극성을 부리던 때이다. 해적들이 신라의 서남해안에 출몰하여 양민을 나포하여 당나라에 노비로 팔았다. 이 사건은 양국간의 외교문제로 등장하였다. 장보고가 청해에 진을 설치했던 동기도 이 해적들의 양민 나포를 막으려는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太和년간(827~835)에 오면 신라 서남해안에 출몰하던 노예무역선은 그 자취를 감춘다. 이 사실은 곧 장보고가 황해에 횡행하던 크고 작은 해상세력집단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의 세력권하에 두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淸海鎮大使」라는 직함이 그러하듯이 그의 군단은 사병집단적 성격을 짙게 띠고 있었다.<sup>150)</sup> 그래서 청해진 일원은 물론 재당 신라인 사회도 하나의 체계 속에 조직화하고 자기의 통솔하에 두면서 사적인 조직으로 활용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청해진과 적산촌 그리고 북구주를 근거로 하여 신라·당·일본의 3국무역은 물론 서방세계와의 중계무역도 독점하여 명실공히 동아무역의 패권을 장악하였다.

〈金文經〉

150) 李基東, 〈張保皐와 그의 海上王國〉(《張保皐의 新研究》, 莞島文化院, 1985), 100쪽.